(www.mest.go.kr)

『2008 전국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수상 작품

2008. 6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2008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

구분	작품명	성명	지역	소속	페이지
최우수상	특전사 우리 고모	이하영	충남	입장초 6-1	1
	엘리자베스에게 박수를	전영현	대전	송강중 2-5	6
	'이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이지수	충남	안면고 3-3	9
우수상	멋진 남자가야금 연주자를 꿈꾸며	윤인혁	경기2	검산초6-1	12
	오빠도 '빌리'가 될 수 있어.	김성록	대전	유천초 6-1	15
	나의 악기 속의 양성평등 선율이 들리시나요?	주마리	광주	살레지오초5-산반	18
	여자답게? 남자답게 ? 나답게 !	한지희	서울	영중초 6-2	20
	아버지의 앞치마	이성빈	경기	단원중 2-6	24
	공주님, 왕자님을 구해주세요	장은미	대구	입석중 3-8	27
	나는 바느질을 잘 한다	황지태	강원	광희중 3-1	30
	알파걸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추지혜	인천	함박중 3-7	32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황준철	대구	경상공고 3-3	37
	솜이불 빨래	홍소람	광주	살레지오여고 1-3	41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은희	강원	석정여고 2-진반	45
	아침밥하는 남자	김현	인천	강화여고 2-3	48
장려상	화목한 우리집 양성평등으로부터	진금아	제주	노형초 5-5	52
	장미야, 미안해!	양지석	대구	대구달성초 6-1	54
	당당히 맞서라!	김해리	강원	주문초 6-2	56
	골리앗 크레인의 여기사와 병실의 남자 천사	박진현	경남	거제신현초 6-4	58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하길……	변애솔	전남	보성초 6-3	61
	서로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필요해요	윤예흔	경북	연일형산초 5-3	64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이창현	울산	이화초 6-1	66
	양성평등은 집안에서부터	임혜인	인천	부광중 3-9	67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비행기	김혜진	전남	삼계중 3-3	70
	여자 팔자 뒤죽박죽 팔자	김종우	충남	서천중 2-2	73
	뭐든 자연스러운게 좋아요	최우석	경남	거창중 3-1	77
	아들과 딸	최문정	부산	금명중 2-1	79
	우리 평등하게 결혼했어요.	이다슬	충북	황간중 2-2	84
	허브꽃 향기	박희림	전북	운봉중 3-1	87
	삼촌의 당당한 직업, 미용사	이은영	경남	경남외고 2-2	91
	황금알도 암탉이어야 낳는다	정신희	충남	논산여고 2-2	94
	학교에서 시작하는 양성평등 첫걸음	박해성	경기	수원 경성고 2-3	98
	또 하나의 탄생의 열매	김혜련	경남	삼천포중앙고 2-4	101
	누가 먼저 변할까?	연은정	서울	서울사대부고 2-6	104
	양성평등의 조화	장정균	전북	삼례공고 1-6	108
	웅남	최유리	울산	무거고 2-5	111

최우수상 수상작품

특전사 우리 고모

충남 입장초등학교 6학년 1반 이하영

"와, 고모다! 고모! 혜경 고모!"

화상 전화 너머로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밝게 웃는 고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는 것을 보니 아픈데 없이 건강 한가 봅니다.

'휴~우, 다행이다. 몸 건강한 모습을 보니.'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곤 주위를 둘러보니 아빠와 엄마 또한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아빠의 눈가가 빨개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고모는 지금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있습니다.

우리 고모는 특전사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고모가 특전사라고 소개하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자가 어떻게 특전사가 될 수 있지?'

'독하다.'

'여장남자 아니야?'

말은 안 해도 다들 이런 표정과 마음인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 고모는 진짜! 특전사입니다.

저는 고모가 특전사가 된 이후로, 고모가 집에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데 그럴 때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가득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던 아찔한 이야기,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밤새 걸었던 이야기, 다른 남자 군인들과 똑같이 훈련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여자인 나로서도 고모가 너무 멋있을 만큼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저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특전사로 변해있습니다.

그런 고모가 작년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

리 가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께서도 너무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걱정 되는 마음을 감추고 고모를 배웅했습니다. 고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모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모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아빠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학교도 보내고 도시락도 싸주며 키운 큰 딸이나 다름없다고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모가 대학을 졸업한 것은 재작년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고모는 번번이 취직에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얼굴이 못생겨서입니다. 고모는 덩치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것이 얼핏 보면 남자 같은 체격입니다. 눈도 그리 크지 않고 팔다리도 가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매번 취직에 실패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럴 때면 집 뒷마당에서 소리 죽여 우는 고모의 눈물을 보곤 했습니다. 소리는 참고 있었지만 닭똥 같은 눈물은 참을 수가 없었나봅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자는 능력만 있어도 취직이 되지만, 여자는 능력도 있고 얼굴도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면접을 볼 때 왜 여자의 외모를 보는 것일까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여자는 큰일을 못한다며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을 하고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 고모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나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 두고 군대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간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더더욱 특전사는 안 돼!"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모.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요. 서울 큰 회사가 아니라 천안 시내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건 어때요?"

하며 엄마도 고모를 말렸습니다.

"오빠, 언니!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편견일 뿐 이예요. 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임무잖아요. 그건 꼭 남자만 되고 여자는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하고 싶던 일이예요."

고모도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도 고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은 아침 식사 시간도, 저녁 식사 시간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고모는 무척이나 바빠졌습니다. 혼

자 동네 입구를 뛰어 다니기도 했고, 줄넘기도 하고,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고모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당당히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작별의 인사도 할 새 없이 헤어졌습니다.

고모가 첫 휴가를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고모가 군대를 간다 했을 때 아빠는 펄쩍펄쩍 뛰며 반대를 하시더니 많이 누그러지신 모양입니다. 고모가 현관문을 들어서자 아빠는 고모의 군화 끈을 말없이 풀어 주었습니다. 아마 아빠의 마음도 풀려버린 군화 끈처럼 눈 녹듯 스르르 풀려 버렸겠지요. 밥상에서 고모의 밥 위에 고기며 계란을 얹어 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모의 냄새가 너무 포근해 잠에 스르르 빠져 들었습니다. 꿈속에선 저 역시 멋진 군인이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군대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분단국가지요. 오래전부터 남자가 이 나라를 지켜 왔지만 지금은 여자의 능력을 높이 사 여자도 얼마든지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남녀 성차별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고모의 말처럼 군인의 목적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느 법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고모와 같은 군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체력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한, 몸과 마음이 씩씩한 여자들이 남자들과 어울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또 반대로 남자가 무슨! 여자나 하는 일이지! 라는 수많은 편견들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우리 시절엔 꿈도 못 꾸던 일이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완전한 평등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습관 같은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까지 무시하고 똑같아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의 고유한 개성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의 개성을 존중한 평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재고 금을 긋고 하지는 말자 구요!

수업 시간에 배운 행주 대첩 이야기에는, 긴 치마를 짧게 잘라 만들어 입고는 돌을 날라 승리로 이끌어 냈다는 “저고리 여군” 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미리부터 무엇이 되고 싶다는 급한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알아볼 셈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모

처럼 여자에게는 생소한 직업이라도 말이지요. 고모는 자기의 신체적인 특징을 장점으로 만들어 멀리 이라크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모, 사랑해. 몸 건강히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박수를!

공존과 존중의 가치로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대전송강중학교 2-5 전 영 현

"엘리자베스, 너 꼴이 엉망이구나! 머리는 온통 헝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나 뒤집어쓰고. 진짜 공주처럼 챙겨 입고 다시 와!"

이 대사는 그림책 <종이 봉지 공주>에서 용에게 잡힌 왕자를 구하러 온 공주에게 왕자가 내던진 말이다. 동화 속 공주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는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공주는 고난의 과정에서 예쁜 옷마저 모두 불에 타버려서 종이 봉지를 입고 왕자를 구하러 가지만, 정작 왕자는 공주다운 외모를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공주를 되돌려 보낸다.

참 재미있게 읽은 그림책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다시 읽어 보니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공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용감하였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성다움'이었다. 그것은 곧 여성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하며, 얌전하고 소극적인 것이 최고의 미덕이어야 하고, 예쁜 외모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라는 고정 관념에 다름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권리를 갖고 똑같이 자유를 꿈꾸는 인간이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라는 견고하고도 확고한 이분법적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유로 우리의 엘리자베스의 현명한 용기는 '유리 천장'에 부딪치고 만 셈이다.

'유리 천장'은 높은 하늘이 훤히 내다 보이나 실제로는 하늘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흔히 이 말은 직장 생활 속 여성의 지위를 빗대어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나는 이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성적 고정 관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진정한 양성 평등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호주제 폐지, 출산 휴가 보장, 생리 결석 인정 등과 같이 양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졌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양성 평등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식의 문제이다. 즉 의식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양성 평등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유리 천장'속에 갇혀 메아리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의식의 전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 사회의 '유리 천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사문을 읽은 적이 있다. 기사문은 가사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을 보

여주는 설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70% 가 넘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하는 공동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사 노동의 참여 이유로 '아내를 돕기 위해', '아내의 요구 때문에'이라고 응답했다.'가사 노동은 집안일이기 때문에 참여가 당연하다'라고 인식하는 남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실제 사회・문화・경제・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유리 천장'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니 우리 모두의 머릿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의 머릿 속에 존재하는 '유리 천장'부터 걷어내지 않는 한,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아가 사회에서도 진정한 양성 평등은 허물 좋은 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쯤에서 나는 '공존'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떠올려 본다. 궁극적으로 통합과 상생을 지향하는 21세기 다원화 시대에서 어떠한 문제도 '공존'과 '존중'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성 평등 문제도 결국 '공존'과 '존중'이라는 가치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가 결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인식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지독한 형벌에 다름 아닐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관습과 문화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존재 가치는 가장 위대했으며, 인간의 가치가 곧 역사이고 문화였다는 것이다.

결국 양성 평등 문제는 인간의 본래 가치인 '공존'과 '존중'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습과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일정한 성 역할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의 틀을 허물고, 서로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자유 선택과 의지를 존중할 때, 진정한 양성 평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 세심하고 감정이 풍부한 남성도,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성도, 네일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에 종사하는 남성도, 가사일을 담당하는 남성도 존재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성도, 자동차 정비사 ・ 조종사에 종사하는 여성도, 당당하게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나는 이 말이 곧 여성만을 위한 명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의 하늘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공존'과 '존중'의 가치가 인정될 때, '유리 천장'이 아닌 더욱 푸르고 맑은, 열린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리라.

위협을 무릅쓰고 왕자를 구하러 간 현명하고 당당한 여자, 엘리자베스를 향해 큰 박수를 보낸다. 그녀를 돌려 보낸 것은 가혹한 성적 고정관념이었으나, 그녀의 용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분명 여성으로서, 혹은 여자이

기 때문에 평가 받아야 할 외모의 가치가 아니라 현명한 지혜를 고난을 헤쳐 나간 그녀의 용기와 도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이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충남 (태안)안면고등학교 3-3 이지수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교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출석을 부르셨습니다.

“박가현.”

“네.”

“배지수.”

“선생님, 저 오늘부터 이지수로 성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지수라고 불러 주세요!”

“성이 바뀌었어? 음, 그래 그럼. 이지수.”

“네!”

이 일이 있은 직후부터 학교 친구들이 왜 성이 바뀌었냐고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잖아!”

제 기억이 맞는다면 분명 3월 12일이었을 겁니다. 성이 ‘배’씨에서 ‘이’씨로 바뀌게 된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그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모를 이름 하나에서, 학교 친구들이 저를 ‘배지수’가 아닌 ‘이지수’로 불러 줄 때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여권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월 12일. 집으로 돌아와 보니 드디어 법정에 성이 바뀌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라고 말이 나왔지만 워낙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날을 기념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 아빠와 같은 성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새 아빠를 친부로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아빠랑 왜 성이 다르냐는 이상한 눈초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족 모두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호주제가 폐지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할 때에 아빠 이름을 써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상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될까봐 학교 동의서에는 엄마 사인이나 도장만 받아갔었는데 이제 나도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아빠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아팠습

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그리고 그들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 지를 생각하며 호주제 폐지로 이룬 양성 평등을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호적을 대체한,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된 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를 바뀐 성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취지문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등록상에서는 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아빠랑 같은 '이'씨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친부와 양부가 따로 표시되며 양부라고 명시되어 있는 새 아빠의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성과 본만,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바뀌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새 아빠랑 같은 성이 되었지만 그 것 뿐이지 결국 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자 성이 바뀌어 기뻐했던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진짜 새 아빠의 가족이 되려면, 그래서 친자로 인정받고 싶다면 친양자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만 15세 미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양자입양제도는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부랑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인 데다가 연락이 닿는다 한들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친자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했던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폐지될 만큼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부성원칙이 수정되고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여성부에서 끊임없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실시되는 가족제도로 진정한 평등이 이뤄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과 본만 바꿀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지만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든 게, 아무리 친부가 아니라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건데 이제 성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많지만 그래도 올해는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문제점들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비로소 진정한 양성 평등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자가 차별대우를 받았던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나 아직 그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바뀐 제도를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생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고, 이러한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평등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남성들이 가졌던 권리(부성원칙)를 박탈당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부'는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의 앙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성 평등은 여성의 권위를 높이고 남성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의 '남녀 공동 국방의무 문제 회피'나 '군 가산점 폐지' 문제가 자꾸 좋지 않은 목소리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같은 여성이지만 여성부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진정한 성 평등은 성적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필연적 차이를 인식하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편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너무 여성의 권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남성들은 그런 여성부를 왜곡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평등의 첫 걸음인 셈인 것입니다.

자, 여성부는 남성의 우월함을 법의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여성의 권위는 점차 남성의 권위와 대등해지고, 이제 양성 평등의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때,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고정관념을 깨버릴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양성 평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수상 수상작품

멋진 남자가야금 연주자를 꿈꾸며

검산초	윤인혁	멋진 남자 가야금 연주자를 꿈꾸며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학교특색사업으로 1교시 시작 전에 가야금반을 운영하고 있다. 총 28명의 학생 중 남자는 나를 포함하여 2명뿐이며 그 외 1명의 남학생도 3학년생인 내 동생이다.

내가 가야금반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우연히 국악기를 전시해 놓은 학교에서 가야금 줄을 한번 뜯어보았는데 소리가 상당히 좋았었다. 그 해 겨울방학 때 우리 학교에서 가야금반 학생을 신청받았고 가야금을 배울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게 신청하여 지금은 오나라를 부르면서 가야금을 뜯을 수 있는 실력까지 된다.

하지만 남학생이 가야금반에 든 것을 의아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 간혹 당황스러운 경험도 했었고, 가야금은 노래와 같이 부르는데 목소리의 음이 낮아 남학생인 내가 따라하기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전히 가야금의 맑은소리와 울림이 좋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남자형제만 3명이다. 그로 인해 첫째인 나는 딸처럼 엄마를 많이 도와드린다. 이제 나는 설거지와 요리에 익숙하며 어릴 적 꿈이 요리사이기도 했었다. 어떤 친구집에서는 남자아이가 부엌에 와서 얼씬거리기만 해도 부모님이 싫어한다지만 우리집에서는 아빠와 나를 비롯해 심지어는 유치원생인 막내까지도 설거지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학교에서는 보건실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1명,남자1명 2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는 보건실바닥의 걸레질을 맡았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물걸레로 바닥청소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내가 했지만 서로 역할분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건실의 물컵이나 기구와 같은 것을 씻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나에게는 이 역할이 맞는 것 같고 우리 둘 다 서로 만족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측면에서 분명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개 남자는 수학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여자는 언어적인 측면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여자아이들은 정적이다. 하지만 우

리반에는 나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으며, 나는 과격하게 노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수다 떠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남자스럽다, 여성스럽다, 또는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여자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성고정관념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도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남성다움, 여성다움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것과 자라나는 환경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집에 여동생이 있었다면 내가 집안일에서나 동생돌보기는 나의 차지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하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서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나의 역할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익숙해졌다.
'남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면 안돼' 와 같은 고정적인 생각, '여자는 남자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큰 일을 맡기면 안돼' 와 같은 차별적인 생각들은 분명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보며 오히려 그런 유교적인 발상이 우리사회의 걸림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언젠가 뉴스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온 뒤 받는 가산점을 두고 여성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 라고 말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문제와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이 비슷한 문제라고 하시며 신체구조적으로 타고난 성적인 차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다소 나의 기분이 누그러졌었다.

성차별적인 것과 성차이는 분명 다르다.
그렇다면 성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속에서 남녀가 협력하면서 일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어떤 일이든 하되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성차이를 인정하며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여자 교장선생님이 계시며, 교장선생님을 뵈면서 여자도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 또한 남자도 섬세하게 가야금을 잘 다룰 수 있으며, 설거지도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남녀차별적인 분위기를 없애는데 한몫 하고 싶다.

또한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남녀로 나누어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를 주로 하는데, 간혹 남녀가 같이 혼합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녀혼합경기를 싫어한다. 남녀가 서로 어울려 축구와 피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남자라고 매번 축구만 하고 싶은게 아니고 피구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활동부서를 조직할 때에도 바느질쟁이 부서에 남자아이들이 신청하면 야유하지 않고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양성평등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남녀가 같이 가정일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남자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넘어야 할 산들은 많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남녀의 입장 차이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남자는 여자일을, 여자는 남자일을 체험하게 하는 1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

남녀가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배려심에서 양성평등의 의식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학교 가야금반의 제1호 남자로서 친구들에게 가야금이 여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꼭 보여줄 것이다.

오빠도 '빌리'가 될 수 있어.

대전유천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성록

"성록아! 이거 봐라. 정말 예쁘지 않니?"

"오빠! 또! 이번이 몇 번째야. 아빠가 알면 어쩌려구. 난 몰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같이 잡지책을 보며 스크랩하는 오빠! 그러나 그 특이한 취미를 너무도 싫어하는 우리 아빠! 잡지책을 뺏긴 일도 수십 번. 이제 지칠 법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 오빠는 예쁜 헤어스타일을 찾아 신나게 오리고 있다.

우리 오빠는 좀 남다르다. 날씬한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 여기에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말투와 몸동작까지..... 게다가 장래희망은 '헤어 디자이너'이다. 내 친구들은 이런 우리 오빠를 보고 '언니! 언니!'하며 부르곤 한다.

학기 초 오빠 학교에서 진로 조사를 했을 때 아빠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헤어 디자이너'라고 오빠가 쓴 내용을 보시곤 크게 화를 내셨다.

"무슨 남자가 할게 없어 이걸 해? 당신은 애들 안 보고 뭐하는거요?"

화를 내시면 볼펜으로 직직 그으셨다. 빨갛게 달아오른 엄마 얼굴을 보며 얼마나 아빠가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 후 아빠와 엄마는 오빠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나날이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한숨소리는 높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삼촌 댁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기회가 되어 가족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이라는 유명한 연극을 보게 되었다. 공연 10분전 좌석에 앉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연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 배우가 멋진 음악에 맞춰 나오기 시작했다. 맨 처음 등장한 배우는 남자였는데 놀라웠던 것은 여자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했고 심지어 노래, 춤 , 대사 등 연기하는 모습까지 너무 여성스러워 어색해 보였다. 그래서 ' 이 공연, 캐스팅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배우가 왜 저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빠는 불만 가득 섞인 얼굴로 말씀하셨다.

"아니, 나 원 참 민망해서..... 그 남자 옷 봤오? 분칠은 또 어떻고.....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유명한 공연이라해서 봤는데 이건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는데 왜 그러세요?"

"얘가! 아직도! 나중에 그런 엉뚱한 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 절대로 안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다. 그 날 이후로 아빠와 오빠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엄마와 나는 슬슬 눈치 보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휴일, 우연히 가족이 모여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빌리 엘리어트' 영화 속의 한 소년은 우리 가족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빌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형과 살고 있는 영국의 한 소년이었다. 그런 빌리를 위해 아버지는 아픔을 딛고 강해지라고 권투를 배우라고 권했지만 권투는 빌리의 적성에 도무지 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는 우연히 발레 학원에서 발레를 배우는 소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순간 빌리는 '나도 저렇게 멋진 춤을 출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 때부터 빌리는 주변 몰래 발레를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춤추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와 형의 반대로 주위에서 오는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나 빌리는 끈기와 노력으로 용감하게 그 역경들을 극복하고 훌륭한 발레가가 된다.

영화의 마지막에 면접관이 빌리에게 "네가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니?"하고 묻는다. 이 때 빌리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조금 어색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모든 걸 잊게 되고, 사라져 버려요.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기분이죠. 저는 그저 한 마리의 새가 되죠. 마치 전기처럼....."하고 말을 한다. 꿈을 향한 빌리의 열정이 담긴 말을 들으며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다. 아빠도 그 장면을 보며 오빠에게 요 며칠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다.

"너도 빌리처럼 그렇니?"

"....."

오빠는 말없이 고개만 끄떡거렸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예전의 공연을 떠올리며 그 남배우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위의 얼마나 많은 편견과 괴로움 겪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배우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우리 나라는 먼 과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깨질 수 없는 단단한 '편견의 벽'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에서도 남자는 레슬링, 권투, 축구가 어울리고 여자는 발레나 무용 등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펴져 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레슬링이나 권투, 축구 등을 하거나 남자들이 발레나 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어머, 남사스러워, 어째 여자가(남자가) 저런 걸 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그 영화를 본 후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성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만을 보고 판단하는 공정한 사회로 변화되길 바라게 되었다.

다행히도 최근 나의 희망이 실현되고 있다. 바로 우주인 이소연 언니가 그 희망의

출발점이다. 이소연 언니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학에도 나왔고 운동 실력도 뛰어난 언니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소연 언니를 보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 우리 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당연히 남자가 되어야지 왜 여자가 돼? 고산 씨가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여자를 우주에 보내면 되나?’ 같은 잘못된 편견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소연 언니는 그 모든 편견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여성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 밖에도 세계에는 힐러리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사람들이 무시되었던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들을 지키고 참된 양성평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어머! 성록아!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엄마가 해주셨니?”

“아니요. 우리 오빠요.”

깜짝 놀라는 선생님의 얼굴이 재미있다. 화분 가꾸기 1인 1역 활동을 하기 위에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았다. 화분에 물을 주려고 보니 어느새 새순이 돋아났다. 여리지만 역경을 딛고 고개를 내민 초록색 새순이 참 대견하다.

“오빠! 힘내. 오빠도 ‘빌리’가 될 수 있어. 그동안 화만 내서 미안해. 서운했지? 내가 이제 많이 도와줄게.”

오빠를 생각하며 어린 새순이 잘 자라도록 듬뿍 물을 주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에 평화의 새싹이 싹트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싹틔운 그 새싹의 이름은 바로 ‘양성평등’. 이 새싹이 부디 건강하게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인류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함께 이 새싹에 물을 주자. ‘실천’이라는 희망의 물을.

나의 악기 속의 양성평등 선율이 들리시나요?

살레시오초 5학년 산반 주마리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내 눈에 크게 확대되어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다.

'카라얀의 여인'이라는 글귀와 함께 클라리넷을 껴안고 포즈를 취한 아리따운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슬쩍 보아도 호기심을 잔뜩 자극시키는 글귀와 사진이었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내 가슴은 쿵쾅! 쿵쾅! 원인 모를 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자비네 마이어'. 세계적인 여자 클라리네티스트였다. 사진 속 그녀의 심상치 않은 미소만으로도 내 눈길이 멈췄을 텐데 거기에 클라리넷과 '카라얀의 여인'이라는 글귀까지 있었으니…….

나 역시 살레시오 오케스트라 단원이며 또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5학년 여자아이기에 더더욱 그 기사는 내 가슴과 내 영혼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 수 밖에 없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자비네 마이어!'

그녀는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자 단원이었다. 그러나 남자만 단원이 될 수 있었던 베를린 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성우월주의적인 관념으로 인해 9개월 만에 오케스트라를 떠나야 했던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심사위원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친 뒤에서 연주를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놀라운 실력은 카라얀을 감동 속으로 이끌었으며 카라얀이 그 모든 전통을 깨고 전격 클라리넷 연주자로 그녀를 뽑았던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뽑았던 카라얀에겐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이미 내 자신이 자비네 마이어가 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등줄기를 타고 온 몸으로 퍼져 소름이 돋았다.

'아니, 어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청중의 가슴을 녹이는 연주가들에게 조차 이런 성차별적인 발상이 나온 것이지?'

하염없이 분노가 솟았다. 기가 막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9개월간의 그녀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남고 단원을 그만 두고 나와야 했단다. 결국 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클라리넷을 시작할 무렵에도 주위에서 조그만 체구의 나에게 '여자가 하기엔 조금 크다, 무겁다.' '어머, 네가 클라리넷을 하니?' '악기 할 힘이 되겠니?' '남자 악기라던데…….' 한 술 더 떠서 '네가 하면 얼마나 하려고…….' 내지는 '하하하, 너 같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악기 소리도 내는구나. 신기하다.'라는 말을 듣곤 했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성 차별적인 관념 속에 덩그러니, 느낌 없이 서 있었구나.'

자비네 마이어의 기사를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비록 그 단원 속에 속하지는 못 했지만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났다고 한다.

언젠가 읽은 책 속에 '먼지 낀 안경'이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먼지 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어떠할까? 성 차별 역시 '먼지 낀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보았다.

'남자가 하면 되고 여자가 하면 안 돼.'

'나는 잘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지?'

'남자가 무슨…….'

'여자이면서…….'

모두 안경을 닦고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다행히도(?) 난 살레시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며 그것도 클라리넷 퍼스트주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내 옆자리에는 나보다 키도 두 배는 큰 6학년 오빠가 나와 같은 악보를 보며 클라리넷을 불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 주고 싶다.

'빰빠밤바～～～, 빰빠라밤～～～～～～.'

오늘도 나의 클라리넷 소리는 살레시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의 한 음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 나답게 !

서울영중초등학교
제 6학년 2반 한 지 희

따스한 봄날, 점심시간입니다. 수지는 교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민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책 돌려 줘! 얼른 달란 말이야!"

남자아이들이 민아의 책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잠시 후, 수지는 남자아이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번만 더 민아한테 장난치면 가만 안 둘 거야!!"

수지는 꼭꼭 다짐을 받고 돌아섭니다.

"수지야 정말 고마워."

"아니, 뭘. 괜찮아. 널 괴롭히던 아이들이잖아? 난 그냥 혼내준 것 뿐 인걸……."

둘은 다시 교실로 웃으며 들어갑니다. 그러자 호랑이 선생님께서 안됐다는 눈빛으로 수지를 보고 계십니다.

"김수지! 여자애가 그게 뭐니! 여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왈가닥처럼 다니면 여자가 아니야, 남자라고! 알겠어?"

호랑이 선생님이십니다. 교내에서 잔소리가 많으시기로 소문나셨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여자들은 항상 얌전해야 하는지. 자신은 그냥 원래 하던 것대로 한 것뿐인데…….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수지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괜스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5,6교시를 마치고 수지가 집으로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준희가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수지야! 같이 가! 아까부터 얼마나 불렀는데……."

준희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수지는 미안한 듯 머리를 긁적입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함께 사회 숙제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민아는 학원에 가야 해서. 그래서 나만 왔어."

수지와 준희는 수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준희를 보시곤 눈살을 찌푸리십니다. 그러나 수지는 보지 못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지가 자료 찾는 것을 보려고 준희가 가까이 다가와 앉으려 하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떨어져 앉아라.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넘으면 같이 앉지도 말라고 했다. 알겠니? 서로 떨어져 앉아라."

‘치, 할머니께서는 매일 저 말씀만 하셔, 같이 앉으면 어때서.’
수지는 구시렁대며 준희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를 끝내고, 준희가 간 후, 수지는 할머니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김수지. 이리 와 보거라. 너는 여자이니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느냐? 그런데도 왈가닥 짓만 하고. 우리 김씨 가문의 여자들은 언제나 조신하고, 차분하고, 얌전했다. 그런데 너는 무슨 경우냐? 언제나 여자답게 행동해라, 여자면 여자답게, 남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냔 말이다. 언제나 넌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알겠느냐! 들어가서 반성하고 오너라.”
수지는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하지? 여자는 운동선수가 되면 안 되고, 남자는 미용사가 되면 안 되나? 왜 그렇지?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데, 성이 다르다고 다른 차별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해.’
수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수지는 동네에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남자아이를 심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은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수지가 다닐 때마다 이상한 듯 쳐다보셨고, 학교 친구들도 “야, 수지 근처에 가지 마, 조폭마누라야” 라며 놀렸습니다.
그렇게 괴롭던 어느 날, 민아, 준희, 진우가 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걱정 마, 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친구를 위해 그런 거잖아?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넌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거야.”
민아, 준희, 진우는 수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지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수지는 오해를 없앨 수 있었고, 어른들은 수지를 용감한 아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친해져서 4총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4총사가 민아네 집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수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교실번호가 여자가 뒤 번호인 것도,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남자가…….’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자, 진우가 수지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솔직히 그래. 수지처럼 힘이 센 여자들도 많은데 남자가 힘이 세다고 남자한테만 힘든 일시키잖아.”
“뭐, 뭐라고!”
“하하, 장난이야.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경우 참 많잖아. 그치?”
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저……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수지는 민아의 의견이 좋다고 하며 당장 실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희는
“그 방법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고개는 끄덕이실지 몰라도 금방 잊어버리실지 몰라. 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수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대통령께 말씀드릴까?”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그럼, 시장님?”
“수준 좀 낮춰라.”
“그럼……, 누구?”
민아가 손을 반쯤 구부린 채 들었다.
“손을 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기, 그러면 우리가 글을 써서.....”
“시장님께 편지를 쓰자고?”
“수지야. 말 좀 끊지 마. 그래서 민아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차별의 실태에 대한 글을 써서 어린이 신문사에 보내자는 거야.”
모두들 그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4총사는 자신들만 아는 비밀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남녀차별에 대하여 불편했던 점,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모아 글을 만들었습니다. 준희가 그 글을 다듬고 아이들은 다듬은 글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총사는 신문이 나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지가 어린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사가 신문에 크게 실렸어!”
4총사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신문을 보시고 큼, 큼 하고 헛기침을 하신 후 잘 썼다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총사의 기사를 아침조회 시간에 교내에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교장선생님께서도 방송을 들으신 후 4총사를 불러 문답을 하시고는, 불편한 점과 잘못된 생각들은 함께 고쳐나가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신문기사를 보시고 학교에서의 일들을 전해 듣고는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직 다른 마을은 모르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들과 못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나답게.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랑이 선생님께서도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다. 4총사가 원하던 ‘나답게’ 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해주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해주고,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서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자라서 안 되겠지?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라는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이제부터 바꿔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답게' 가 행복해 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의 앞치마

(안산)단원중학교 2학년 6반
이성빈

"안녕하세요. 이쪽은 우리 안사람입니다."

"바깥양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에는 남성,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담겨 있다.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자는 바깥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어느 특정 범위 안에 가두어 놓고 사회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안'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고, 아버지는 '바깥'양반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가 나누어 놓은 이와 같은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 집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다. 우리 형제가 사드린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뽀뽀하고 계시는 이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우리 아버지를 '안팎'양반으로 만든 아주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다.

우리 어머니는 서울로 직장을 다니신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멀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고 밤에도 늦게 들어오신다. 우리가 불평을 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자꾸 실랑이를 벌이셨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마음으로만 후원할 뿐 행동으로는 잘 옮기시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직장일 하랴, 집안일 하랴, 자식들 돌보랴, 내가 보기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 더구나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라 아버지랑 축구하고 뒹굴면서 놀기는 잘해도, 운동 후 무더기로 벗어놓은 빨래에 어머니의 힘이 빠지는 줄은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어서 양말도 훌러덩 벗어놓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일어나시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마구 흔들어 깨워도 어머니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다. 어머니의 사지는 뻣뻣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해 아버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옆집의 도움을 받아 119구급대를 불렀고,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5분만 늦었어도 살 수 없었다고 하시며, 열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내는 식으로 살아오셔서 심한 과로로 인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망치로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은 듯 한동안 멍하니 계시다가 우리 삼형제를

껴안고, 한없이 우셨다. 아버지의 그 눈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의 표현대로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다.

"얘들아! 아빠야말로 효녕대군 20대 자손으로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는 할머니들 얘기를 진짜로 믿을 정도로, 너희 엄마가 아프기까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게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엄마를 잃을 뻔했지 뭐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 저녁에 아빠가 해 준 김치찌개 맛은 어때? 일품이지?"

"아빠,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아빠 손맛 식당이라고 이름 지을까요?"

둘째가 맞장구를 쳐 준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엄마가 그 동안 더 힘들었을 거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특히 장남인 나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동안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밥하고 반찬 만들기, 나는 청소하기, 둘째는 말린 빨래를 옷장에 잘 정리해 놓기, 유치원생이니 막내는 자기가 갖고 논 장난감이나 책들 정리하기 등으로 일을 나누어 정했다. 처음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화도 나고 서글퍼지기도 했다. 둘째는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해서 손바닥에 습진까지 생겼다고 엄살도 피웠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힘을 내곤 했다. 아버지께서도 직장일 하시랴, 어머니 건강 챙기시랴, 집안일 하시랴, 우리 공부 봐주시랴, 정말 힘들어 보였지만 항상 웃으시며 우리 집 선장 노릇을 톡톡히 해내셨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7살 막내가 유치원에서 요리 실습을 했다고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그 요리도 다시 만들어 준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다. 나와 동생은 막내가 입은 앞치마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어머니 앞치마를 꺼내와 아버지께 입혀 드렸다.

"어라, 처음 입어서 어색하네. 너희들 보기엔 어때?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퇴원하기 전에 더 자주 입어서 어색함을 없애야겠네."

하시며 거울에 자꾸 비춰 보셨다.

지금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신나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잔소리도 그 전보다 더 많이 하신다. 같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나누어 하면서 더 사이가 좋아지신 두 분을 위해, 나와 동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무늬 앞치마를 사다드리며 직접 입혀 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앞치마를 입은 모습

이 정말 다정해 보였다.

"자, 찍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뽀뽀하세요."

둘째가 사진을 찍으며 소리치고, 막내는 그 사이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우리 집 만세를 외친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먼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집 사건을 통해, '남자일 따로, 여자일 따로'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성을 위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자와 남자의 역할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지, 단지 신체적 차이로 그 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의 출발점에 성 차별 없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의 출발점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위치에서 함께 출발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주님, 왕자님을 구해주세요

입석중학교
3학년 8반　장은미

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오랜만에 대구로 올라온 고모는 방에 앉자마자 승현이 때문에 민망해 혼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 갔더니, 반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에서 승현이가 공주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하고 민망한데, 물레에 찔려 잠이 들었으니 왕자가 구하러 올 때까지 곱게 누워 있어야 할 공주가, 불 뿜는 용과 맞서 싸우고 있는 왕자를 보더니 냅다 달려 나가 용을 때려눕히고 왕자님과 함께 성을 탈출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자지러지게 웃었고, 나도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들어버렸다.

사촌동생인 승현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사내 녀석이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축구와 로봇을 좋아하고, 공주를 구하는 멋진 왕자님이나 슈퍼맨이 되기를 꿈꿀 나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는 그런 왕자님도 있고, 왕도 있고, 하다못해 궁전을 지키는 기사들이라도 있을 텐데, 공주를, 그것도 전혀 조신하지 못한 공주 역할을 맡은 승현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겨우 웃음을 멈춘 언니가 텔레비전 만화영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승현이 곁에 다가가 물었다.

"승현아, 왜 왕자님이 아니라 공주님 했어? 공주님 했으면 왕자님을 기다려야지."

나도 고모도 귀를 쫑긋 세우고 승현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이나 만화영화에서 눈을 떼지 않던 승현이가 툭하고 던진 대답이란 게 사람 맥을 쭉 빠지게 했다.

"누나들은 자다가 한 번씩 깰 때 없어?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왕자님이 다치고 있으면, 강호동 만큼 힘 센 공주님이면 왕자님 구할 수도 있잖아 뭐."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쟤가 저렇다고 답답해하던 고모가 상을 차리러 가 버린 다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승현이의 그 말이 또 명답이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잠이 들었을 뿐인 공주님, 그것도 외모는 예쁘지만 엄청나게 힘이 센 공주님이라면 자기가 직접 왕자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칼로 용을 물리치는 왕자만 영웅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동생의 별 생각 없어 보이지만 심오한 그 결론에, 나는 동화 속 뿐만 아닌 현대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그 평등의 선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체적 근력의 차이, 정신적 사고방식의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이다. 아무리 힘이 좋은 여자라도 남자의 근력은 여자보다 몇 배는 강하기 마련이고, 골똘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꼼꼼함을 가진 남자라도 여자의 집중력을 따라갈 수 없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의 완제본 되지 않은 책에서 틀린 맞춤법을 골라내고, 다 골라낸 책을 다섯 권씩 들어서 옮겨놓으시오, 라는 일을 제시했다고 생각해보자. 똑같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맞춤법을 찾는다고 해도, 온점과 반점정도로 조금 더 꼼꼼함을 요하는 맞춤법에서는 남자가 실수 할 확률이 더 높다. 또한, 다섯 권씩 책을 옮겨야 한다는 부분에서 체력의 한계에 먼저 부딪힐 것은 역시나 여자일 것이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화 속 공주들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째서 공주들은 꼭 왕자들이 구해야만 하는가? 왕비나, 공주의 시녀들이나, 공주의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는 공주를 구하러 갈 수 없는 걸까? 공주들은, 왜 마녀의 성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인가? 성 밖의 풀숲을 헤치고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써야 할 왕자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던 성의 구조를 왜 꼼꼼하게 기억해 두지 못한 것인가? 어째서 왕자를 도와 함께 성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왕자가 자신을 구하러 와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된다면, 과연 양성이 평등한 나라를 잘 만들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그런 결말을 보여준 동화책 또한 단 한 권도 없다. 그렇다면, 왕자와 공주가 어떤 방법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몇 백 년 전에 쓰인 동화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그 동화 속 공주들이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외치는 여자들과 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잘못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유교사회에서는 무조건 남자가 우월했고, 여자가 무엇이든 헌신해야 했다. 그러므로 양성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남자들처럼 여자들이 우월해야 하고, 여자들을 위한 법이 생겨나야 하며 남자의 헌신이 많아져야 한다는 엄청난 착오, 그로 인한 치명적 계산 착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동화 속 공주들도 '나는 공주이고, 너희들은 왕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하러 와야 한다', '나의 어머니와 시녀들 또한 고귀해야 한다' 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왕자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체력적, 정신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양성이 평등해 지기 위해서는 둘 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십분 발휘해야 함도 당연한 것이다. 왕자님은 힘에 세고 공주님보다 용감하니 무서운 용을 물리쳐주고, 공주님은 꼼꼼함을 이용해 왕자님이 자신을 구하러 올 때를 대비해 궁전의 지도라

도 그려놓아야 하는 것이 옳다. 조금 말괄량이 공주님이라면 용을 실컷 골려주어 힘을 빠지게 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아닌가. 무작정 '왕자님이 공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닌, '왕자님과 공주님은 그렇게 성을 빠져나왔고, 그 후로도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둘이 힘을 합쳐 이겨나갔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인 동화가 아닌가 생각했다.

여전히 만화를 보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승현이에게 넌지시 물었다.

"승현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왕자님은 잘 구했어?"

잠시 고개를 갸웃하던 승현이가 빙긋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애들이 왕자보다 더 멋있는 공주는 처음 봤대."

배를 잡고 웃으면서 나는 승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 어디를 뒤져보아도 없을 왕자님보다 멋있는 공주님을 만들어낸 승현이는 정말 창작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의 그 멋진 공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또 예쁜 딸이 생기면, 예전에 내가 연기했던 그 멋진 공주님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칠 멋진 아빠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바느질을 잘 한다

강원도 동해광희중학교 3-1 황지태

"엄마! 나 오늘 합기도에서 물구나무 서기 배웠다! 봐, 하나 둘!"

합기도를 다니는 동생은 하루에 한 가지씩 식구들에게 배운 것을 자랑한다. 신기하게도 동생은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 당장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같은 합기도장을 다니고 배우면서도 그것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운동감각이 조금은 둔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동생은 여자고 나는 남자다. 그리고 동생은 초등 5학년의 어린 아이며 나는 청춘의 정점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보통, 남자는 힘과 운동신경이 좋고, 여자는 힘은 약하지만 섬세하고 꼼꼼한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생과 나는 반대다. 나는 동생보다 달리기도 뒤지며 앞지르기, 돌려차기 등 모든 동작이 둔하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신경이 여동생보다 둔한 것이다. 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창피해서 숨기고 아닌 척 하며, 비교되는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상황을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있다. 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느질 솜씨는 우리 학교 가정선생님 다음으로 잘한다. 운동은 아니지만 섬세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데는 자신 있다. 나는 가정수행평가가 항상 만점이다. 하지만 나는 가정과목이 거의 완벽하다는 사실을 운동신경이 여자보다 뒤 떨어진다는 사실보다 더 철저히 숨긴다. 남자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운동장에서 힘차게 남과 같이 뛰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반대로 여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오천년 역사 이래 첫 우주인이 탄생하였다. 러시아의 두 우주인과 우주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다녀왔다. 그런데 그 우주인은 다름 아닌 여자. 그동안 우주개척의 몫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간 여자우주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남자우주인이 먼저 개척하고 탐험한 뒤를 따

라서 갔다 오거나 남자우주인의 보호 아래 다녀오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숫자도 남자에 비해서 훨씬 적다.

그런데 이번 우주인 선발은 남여의 구별에 따른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남자여자의 구별 없이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별히 여자만 할 수 있는 연구가 따로 있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우주인으로서 최적격자로 선발된 것이다.

3만6천명의 지원자 중 절대다수는 남자였다고 한다. 그중에서 이소연 우주인이 가장 적격자로 선발되었고 1년 넘게 무중력상태에서 지구의 5배 압력까지 견뎌 내야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비한 훈련 등 일반남자들도 하기 힘든 각종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간 우주탐험의 역사를 보면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로, 우주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주여행이었다. 그러나 이소연 우주인은 오히려 그 우주에 살고 싶다며, 체력적으로 우수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우주탐험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소연 누나의 우주탐험은 여자 같은 특성, 남자 같은 특성으로 구분하는 나의 관념과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탐험이었다. 그 어떤 일에도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그간 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마음놓고 소리치고 싶었다. 내 마음 속에 있던 내 아닌 것들의 껍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느질을 잘 한다는 것도 숨기지 않을 계획이다. 그것은 다만,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운동신경이 둔할 뿐이고, 섬세함은 오히려 다른 남자 아이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일 테니까 말이다.

모든 성은 평등하다. 이것은 기회의 차원이어야 하며 권리의 차원이어야 하며 의무의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 남자 미용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섬세함으로 이 세상의 우둔한 것들을 바느질 하듯이 기워낼 자신감이 생겼다. 남자라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알파걸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함박중학교
30735 추지혜

알파걸, 골드미스, 립스틱 리더십.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새로운 신조어이다. 알파걸은 그리스어의 첫째 자모인 알파(α)에서 따온 용어로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댄 킨들러 교수는 알파걸을 '학업과 운동, 인간관계와 리더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남성을 능가해 질주하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걸들은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가진 여학생(혹은 여성)들이다. 이러한 '엘리트 소녀들'의 약진에 따라 골드미스(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20~30대 싱글여성), 립스틱 리더십(남성들과의 경쟁을 뚫고 최고 지도자 위치에 선 여성들의 리더십), β-Boy(모든 면에서 언제나 여성들에게 뒤처지며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성) 등의 개념이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은 전부 여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들의 성역으로만 알려져 왔던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역시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된 이래로 입학생과 졸업생도 줄곧 여학생들이 수석의 영예를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성이 가진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능력 발휘가 주목받고 있을까? 이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남성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즉 여성들의 사회화가 부각된 것은 남성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또 전통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언제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해야만 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학문을 익히거나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었지만, 여자는 그럴 기회가 흔치 않았다.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팔자가 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이 인생의 모두였다. 어떤 목표의식이나 자기 성취욕 따위는 없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 자연 여성의 삶은 사회가 아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기 힘들었으며 여성들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그 울타리를 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면서 점차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여성의 능력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가정에서 움츠리고 있던 여성들이 사회로 활동영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남성중심의 이념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현상이 주목 받고,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뛰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그 생각과 다르게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내자 이런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다면 굳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뜻을 가진 말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을 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완전하게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리더십을 갖고 일을 추진하거나 남성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면 칭찬을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남자보다는 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런 생각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직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알파걸이나 골드미스는 가정(여기에서의 가정은 한 성인으로서 배우자를 만나 꾸리는 가정을 의미로 한정한다.) 을 갖지 않은 미혼녀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을 꾸려서도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혼여성을 뜻하는 신조어도 분명히 생겼을 테지만 아직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 말이다. 즉 남성이라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여성의 능력은 사회에서 발휘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사회의 기초인 가정에서조차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다.'는 말은 남성중심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 있던 말이다. 아버지는 남자다.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버지이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하러 가시거나 밭일을 하러 가시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시며 고된 몸을 이끌고 밤늦게 들어오시면 힘겹게 주무셨다.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하시며 우리들을 위해 한 몸 희생하셨다. 모든 경제 생활은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났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우리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진 유교 사회 아래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생각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은 사회에서 소외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역할에 뒤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 아침 일찍부터 일 나가시는 아버지를 위해 더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입으신 옷과 가족의 입었을 옷을 매일 빨아주셨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시고, 아버지가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시면 편히 뉘실 수 있게 방을 청소하고 이어 허기지실까 재빨리 밥을 지으셨다. 아버지가 주무실 때야 비로소 어머니도 주무실 수 있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만큼, 어머니도 고생하셨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만 대단하게 여겨졌고, 아버지만 더 힘드신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는 직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벌었던 사람은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주로 힘쓰는 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으므로.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의 뒤에 가려져 같이 가족을 위해 고생하면서도 아버지 보다는 힘을 쓰지 않으니 살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희생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

내왔다. 항상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였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결국 똑같이 일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간이 다르고, 그 성과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 여성의 능력이 남자에 비해 낮게 평가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을 표출하고 자기 성취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더 부각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남성중심의 사회가 아직 남아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가정이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결혼을 한다면 책임지고 지켜야할 무엇인가들이 나 하나만 사랑하고 아끼면 됐었던 지난날들과는 다르게 다소 무겁고 그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하자니 곱지 않은 시선들로 바라볼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어 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 가정 등 여러 면에서 아직 사람들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아직 여성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문화를 바꿔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큰 본보기가 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라 해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쉽게 대하면 안 된다. 동등한 배우자로서 반드시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가끔 주부로 일하고 있다하여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대체 뭘 알겠냐'는 식으로 어머니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은연중에 자식들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업 주부도 마땅히 인정받아야하는 일이다. 살림 역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이다. 가정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가 아닌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분 다 똑같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차이가 날 때가 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앉아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시다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하시고 주무신다. 하지만 어머니는 퇴근하시자마자 밀린 청소에 빨래에 저녁식사와 설거지까지 전부 어머니의 몫이다.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집이 편히 쉬어도 되는 곳이며 어머니에게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고 있는 골드미스가 늘어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안일도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하루 종일 개인시간 하나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를 위해 청소든, 설거지든 하나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혹은 서로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같이 일을 함으로서 서로 힘든 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소

중함을 배우게 된다. 분명 몸소 경험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존중 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말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야 말로 양성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결국 아이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학교는 사회생활의 기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느 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돼서 말이야……. 남자가 돼서 말이야…'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용하게 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기존의 여성스러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자가 조심성 없이 말이야, 너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니, 여자가 돼서 칠칠치 못하게'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된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남성스러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는 세 번밖에 울지 않는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왜 여자는 여자다워야,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가. 아니 그 전에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란 구분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인 성(性)을 사회학적인 성향의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라는 흑백 논리로까지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부터가 문제이다.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개체가 가진 성향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물리적인 능력의 차이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말하듯이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는 체력과 힘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말 운동으로 단련된 강인한 여성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당연히 남자의 물리적인 것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주로 건설이나 농업 같은 쪽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한다면 물론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도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고 더 발휘하는 곳에서는 남성들의 힘을 앞세워 여성들을 깔보거나 비하하고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인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능력은 각자마다 내포되어 있는 잠재력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낼 수도 지배할 수도 없는 개인의 특기이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 태어났든 그것은 그 어떤 사심의 개입 없이 단지 그 능력 단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같은 일을 주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겨룬다면 그것은 그 일에 필요한 능력만을 평가해야 만하는 것이다. 혹, 장시간동안 하는 일이어서 여성이 체력이 달려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남성의 능력을 사야함이 마땅하겠지만, 같이 주어진 일을 똑같이 완성하였다면 거기서부터는 단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얼마나 완벽함을 끌어냈느냐. 이 두가지만으로만 평가해야 한다. 여성이 좀 더 우수했다면 여성에게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모든 기회도 똑같이, 처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더라도 똑같이 청소할 수 있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맡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각자의 능력을 상호보완하며 자연스럽게 조화되게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부터 여자건 남자건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같은 숙제를 내준다면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같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예민한 시기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바로 잡아야하는 것은 바로 잡아 서로 같은 경쟁을 했을 때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야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작은 출발이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하나만 보아도 아직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이 멀기만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처녀작, 처녀항해, 쭉쭉빵빵, 여성총리, 남자간호사' 등 우리가 한 번쯤 들어 본 말들이다. 여기에는 성차별이란 의식이 담겨 있다. 왜 '처음'의 뜻을 '처녀'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직업에 굳이 '여성, 남성'을 구분해야 하는가. 언어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했다. 편견이 담긴 말들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부터 하나 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엔가 바뀔 것이다.

세상은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겨 놓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최대한 표출하여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게 어떤 사람이건 그 능력을 인정해두고 높이 사면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라지고 오로지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 받는 날 알파걸, 골드미스란 말은 사라질 것이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경상공업고등학교 전자기계과
3학년 3반 황준철

저는 우리 집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입니다. 아니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 주부였습니다. 지금도 주부는 주부인데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림을 참 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저금도 하시고, 우리들 학원도 보내주시고, 계절마다 옷도 사주시고, 아침저녁으로 맛있는 식탁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별로 넓지 않은 우리 집을 늘 쓸고 닦고 하십니다. 덕분에 우리집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살림을 참 잘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는 살림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2년 전쯤에 우리 어머니는 동네 아파트 반상회에 가셨다가 무슨 여성 단체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하는 모임이라는데, 사실 저는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후로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종종 외출을 하시고, 무슨 연수나 세미나 같은 데도 꼬박꼬박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단체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마다 가족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주최로 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태껏 가족회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깐씩 상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그런 경우도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아버지가 그냥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가족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혹 별다른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 시간에 쫓겨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회의는 꼭 실시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사 분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사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중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사일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화장실 청소와 빨래 개기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은 대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겠지만, 제 방 청소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어머니께서 늦으시면 아버지와 제가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사 분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몹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내심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고, 아버지의 의견대로 가사 분담이 없던 얘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 여태껏 밖에서 돈 버는 일 밖에 모르던 아버지에게 갑자기 가사일을 맡기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작이 반이라고, 또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시면서 일단 한 번 가사 분담을 해보자고, 해 보지도 않고 왜 지레 반대를 하느냐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처음 보았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의 완강한 주장에 의해 우리집은 가사 분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끔씩 신경질을 내면서 신세한탄을 하실 때도 있지만, 비교적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추석 명절에 우려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가사 분담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모든 가사일에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끝으로 우리 집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남 2녀 중 장남이십니다. 때문에 명절을 비롯해 제사, 계모임 등 우리 가족의 대소사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은 모두 맏며느리인 우리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두 분 다 직장생활을 하시고, 또 부산에 살고 계셔서 사실상 명절 이외에는 잘 뵐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오랜 세월동안 당신 혼자서 도맡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제수 음식 장보기부터 음식 만드는 것을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했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명절 때마저도 가사 분담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 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는 가사 분담을 하면서 제일 바쁜 때인 지금은 왜 도와줄 수 없냐고 따졌지만, 아버지는 하여튼 안 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가사 분담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작은 아버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들킬까봐 두렵고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제수 음식 장을 보고,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전을 굽고, 과일을 씻고, 밤도 깎았습니다. 기름으로 얼룩진 그릇과 접시를 씻고,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만 지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왜 어머니께서 명절 때마다 그토록 힘들어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정성스럽고 풍성한 차례상 속에는 어머니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가사 분담을 반대하시고, 결국 예전의 우리 집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추석 사건을 계기로 저는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사 일은 여자들만의 몫인지? 왜 명절 제사와 기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는 여자들이 도맡아 하고, 남자는 제사만 지내면 그만인 것이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 전통 문화라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성역할을 누가 정해 놓기라도 한 것인지?

추석 사건을 시작으로 한동안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회의를 하기 전보다 더 냉담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침묵과 무관심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꼭 필요한 사무적인 이야기 이외에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바라기에는 두 분이 느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각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냉담한 우리집 분위기가 익숙해질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겨울, 자애원으로 봉사 활동을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빙판 길에서 넘어져 왼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왼 팔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도 많이 접질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이 넘도록 깁스를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사 분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이유로 시작된 가사 분담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우리집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해봤던 일이었지만 집안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마침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방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 저는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추석 연휴 때의 고달픔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처음 며칠은 온 몸이 쑤시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이 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여자니까, 엄마니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편견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어머니는 묵묵히, 훌륭하게 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사 분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유쾌한 기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바쁘지 않은 시간으로 하되,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회의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주제를 충분히 준비해서 회의에 임합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서로에

대한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족회의를 끝낸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가족회의 시간에 참신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역할 바꾸기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보고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울 점과 개선할 점, 보람이 느껴지는 점과 힘든 점 등을 적어 다음 가족회의 시간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양성존중'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과 핵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입니다.

가정이 바로 선 사회, 가정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솜이불 빨래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홍소람

"두 분, 서로 사과하세요."
"난 못 한다. 사과할 사람은 느이 엄마야."
"이 양반 봐라, 어디서 큰 소리야?!"
엄마의 카랑한 목소리가 또다시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아빠는 그 짜증어린 목소리에도 일말의 반응마저 보이질 않는다. 눈에 흰자위를 번뜩여서 아빠에게 사과를 종용하던 엄마는 그런 반 협박이 영 먹힐 것 같지 않자 이내 보란 듯이 앓는 소리를 내며 드러누웠다. 물리치료사가 올려놓고 간 핫팩을 아빠가 뻔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팩 틀어놓고서.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반응이 없다. 그 모습에 또다시 심사가 뒤틀린 엄마가 빽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이렇게 다친 게 누구 때문인데! 아이고, 안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내가 지 때문에 이런 깜냥이 되었는데 사과도 안 하네! 여보소, 세상에 이리 비정한 남편이 어딨겠소?!"
거의 곡을 하며 꺼이꺼이 한탄하는 엄마의 서러운 목소리 덕에, 널찍한 9인 병실의 사람들이 다 우리 쪽을 힐끗 거리며 수군댄다. 그 시선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라, 나는 아빠에게 제발 그 사과 한 마디 좀 하시라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만 아빠의 시선은 오로지 선반 위의 TV에만 가 있다. 물론 TV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엄마의 닦달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아아, 그 대립 한번 첨예하기 그지없어라. 수백 년 간 세계를 달구었던 무수한 논제들 따위가 명함도 못 내밀 자존심 대 자존심의 대립이다. 두 분의 고집에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이 답답하고 어색한 환경에서 후닥닥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이 첨예한 대립의 요지는 이러하다.
우리 어머니 김선자 씨는 3월, 바야흐로 동장군이 쫓겨나는 시기에 겨울 동안 때에 절었던 두터운 솜이불을 빨기로 작정하셨다. 부모님 내외가 덮으시는 공단 이불, 내가 덮는 털 이불, 동생이 덮는 목화솜 이불. 세 개가 장롱 속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두꺼웠기에 어머니는 비교적 얇은 나와 내 동생 것을 먼저 빨고 다음에 두 분 것을 처리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나 하루 빨리 이 짐덩이들을 처분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신 결과, 우리 남매의 이불을 빨고 완전히 지쳐버리셨다. 도저히 공단 이불은 다 하지 못하겠다 싶으셨던 어머

니는 일단 이불을 욕조에 담궈 놓고 내일 처리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당일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쏟아진 건 고생했다는 애틋한 말이 아닌 아버지의 일갈이었다.
"아직 겨울도 다 안 갔는데 웬 놈의 빨래는 빨래야?! 내일 내로 당장 도로 가져다 놓지 못해!?"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는 파스 냄새 진동하는 어머니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당장 내일 저녁 이불을 도로 가져다 놓으라며 호통을 치셨다. 덕분에 어머니는 쉬지도 못한 채 다음 날 힘겹게 공단 이불을 밟기 시작했고, 결국 무리하게 이불을 들어 옮기시다가 그만,
뚜둑하고 허리를 삐끗하신 것이다.

"에이, 무슨 놈의 여편네가 목소리만 커선. 제 잘못도 모르고 무조건 날 좀 보소 하고 고함질이니…."
병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과 엄마가 좋아하시는 양갱을 사들고 미적미적 걸어가는데, 우리 병실에서 투덜대며 아버지가 나왔다. 인상을 잔뜩 쓰신 폼이 또 한바탕 하신 모양이다. 이로써 원내에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소문 다 났겠다.
기실 엄마의 허리는 집에서 사나흘 찜질하면 괜찮아질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다. 그럼에도 비싼 병원비 감내해가며 병원 침대 한 자리 들어차신 이유는 아버지의 독선에 대한 시위의 의미가 강했다. 당신의 독선으로 이렇게 내가 아픈 데다 돈까지 깨졌다! 고 무언의 항의 중이신 것이다,
"아휴, 진짜. 웃기지 않으우? 지가 돈 벌어온 거 외에 무슨 일을 했다구 저리 짜증이람? 정작 다친 건 나인디 말여!"
아니, 무언은 아니다. 어느새 그 넉살로 옆자리 아주머니를 포섭한 엄마는 신나게 아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양갱을 드리고 그 옆에 앉았다. 나오기 전만 해도 움직일 수조차 없다던 엄마는 양갱을 보고 자리에서 태연히 일어나 앉으셨다.
양갱을 한 입 베어 무시고, 참으로 맛있게 우물우물 드시며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다.
"지형아, 너도 니 아버지 하는 거 봤쟈? 나 원,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럼 예펜네가 집안에서 일이나 해야지 좀 피곤한 거 갖구 뭔 엄살이여!'라고 안사람 다그치는 사람이 어딨다냐?"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다. 아이, 지협아, 너는 커서 니 아부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알것쟈?"
동생인 지협이에게 또 다시 다짐을 받아두는 건, 일종의 버릇이었다. 엄마에게 있어서 '남녀평등'이란 일종의 선망의 언어나 다름없었고, 그랬기에 남자인 지협이에게 아버지가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무의식중에 완전히 버릇이 되어버렸다. 지협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 지협이의 머리를 쓰

다듬었다. 그러시더니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신다.
"아이고, 지협이는 이리 착한데 느이 아부지는 왜 그런다냐. 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주길 했나, 어쨌나? 내 정말 느이 아부지에게 코 꿰인 19년 동안 얼마나…."
또다시 엄마의 지리한 신세한탄이 시작될 듯해서 나는 어물쩍 옆자리 아주머니께 넘기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엄마의 인생역정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독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엄마의 한탄은 래퍼에 능히 비견할 만하다.
그러나, 비록 엄마의 똑같은 레퍼토리가 지겨워 빠져나오긴 했어도 심정적으로 엄마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 자식에게까지 독선의 손길을 뻗으시는 아빠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똑똑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엄마의 이 입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마음 한 켠으로 아버지가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독선을 이쯤 하여 바꿔주시기를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휘적휘적 걸음을 옮기는데,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익숙한 인영이 보였다. 아버지였다. 얼마 전까지 금연하시겠다며 금연초를 피우시더니, 엄마의 입원으로 인해 금전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지자 다시 담배를 찾으신 모양이다. 나는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응? 아, 지형이냐."
"네. …엄마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없다. 빨랫감 짊어들고 가다 자빠지라고 내가 시키기라도 혔냐? 왜 다 나한테만 그러냐."
아버지는 내심 서운하셨던 모양이다. 하긴 자식들이 다 엄마 편을 들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래도 난 여전히 엄마 편이었다. 나는 약간 퉁명스러운 어조로 아버지의 말에 대답했다.
"그래도 아빠가 내일까지 빨아놓으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날 추운데 성질 급하게 빨아 치워 감기 걸리면 어쩌겠냐. 그 나이 먹도록 여자 노릇 하나도 똑바로 못 해치운 느이 엄마 잘못이다."
"이불 빨래가 왜 여자 노릇이에요? 힘든 걸로 치면 남자가 해야죠."
"그럼 엄마는 집에서 놀고?"
"아이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렇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열변을 토했다.
"아빠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노는 거 아니잖아요. 이불 빨래 그거, 제가 봉사활동 가서 해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물먹은 솜이 오죽 무거워요? …그리고, 아빠는 밖에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편하게 바깥일에 몰두하실 수 있었단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남은 담배를 구두굽으로 지지며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한 표정이다. 문득 아버지의 손에 들린 핸드폰줄이 눈에 띄었다. 사내 금강산 여행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엄마는 그 때, 아버지가 참 좋은 곳 가신다며 여행 가신 삼박 사일 내내 창문 바깥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다. 필경 아버지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일 거다.

나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 아버지 옆에서, 다시 몇 마디를 더 말씀드렸다. 엄마를, 그리고 내 자신을 대변해서.

"가족이란 게 아빠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엄마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자랐겠어요? 지협이는 또 어떻구요. 또 아빠 없었으면 나랑 지협이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두 분 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맛난 거 있으면 노나 먹고, 힘든 일 있으면 노나 하는 거지요, 뭐 그걸 남녀 따지셔요."

"…이불 빨래가 고렇게 힘드냐?"

"그럼요, 지협이는 들지도 못하는 데요."

"…그렇구나."

침묵과 버무려진 작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익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집 옥상은 넓다. 이불 세 개를 나란히 널어놓아도 전혀 겹치지 않을 만큼 넓다.

"아이, 이렇게 밟는 게 맞냐?"

"한 곳만 집중 공략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 군데요. 팍팍 밟으세요!"

"아따, 이 이상 뭘 어찌 하란 말이냐?"

"엄마도 다 하는 건데 아빠가 못 할 리가 없지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마 오늘 2시에 오시는데 벌써 11시에요!"

내 말에 아빠의 입이 댓발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이불 빨래를 멈추진 않으신다. 외려 밟는 속도가 빨라진 듯도 하다. 엄살이라는 단어가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보다.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엄마가 퇴원하시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 나를 흘겨보시지만 아버지도 웃는 기색이다.

"아빠! 엄마 1시에 오신대요."

"어, 그러냐? 지협아, 설거지는 다 했냐?"

"네, 나는 집안일 잘 해요~ 우리 집에서 못하는 건 아빠 뿐인데."

"맞아. 그러니까 아빠, 좀 더 팍팍 밟으시래도요!"

설거지를 다 하고 올라온 지협이가 땀을 뻘뻘 흘리는 아빠를 보며 밝게 웃는다. 집안일 하는 아빠의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가보다. 나도 마찬가지라 똑같이 웃었다. 높다랗게 푸른 하늘 사이로 나와 남동생의 웃음소리가 맑게 퍼져갔다.

날이 무척 맑다. 햇빛은 무척 쨍쨍하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빨래가 잘 마를 만큼 기분 좋게 화창한 봄날이다.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강원도 석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진반 이은희

“머스마들! 싸게 싸게 안 나오고 뭐하노!”

유난히도 밝은 해가 높이 솟아오른 아침, 눈부신 햇살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으련만 이런 기분을 짓누르는 건 남자만 찾으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와 담배는 밥과 반찬만큼이나 가깝게 지내셨고, 기어코 폐암말기라는 깊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돌아가신 탓에 가족들 모두 애틋한 마음이었다. 그렇기에 직장이나 학교는 뒷전으로 미룬 우리 가족들은 49제를 지내는 동안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만큼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조심조심 할아버지 모시 듯 음식을 나르고, 한번의 절을 해도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절을 하는 것도 모두 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편히 주무시는 산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경호원을 생각나게 하는 멋진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들 뿐이었다. 남자들만이 할아버지 산소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집안에서 지내 온 오랜 관습이었다. 어쩌다 여자도 함께 산소로 갈 때면 할아버지 산소 앞에 재빠르게 상만 차린 채 뒤로 물러나 남자들이 지내는 제사를 텔레비전 보듯 지켜본 뒤 멀리서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처음엔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줄만 알았다. 다른 집안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것이 남녀차별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우리가족이 주말 저녁이면 알람시계라도 맞춰 논 양 제시간에 모여 꼭 보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날따라 이 드라마에서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온 가족이 산소로 가는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집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전혀 없이 다 같이 산소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왜 우리집안과 다른 풍경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우리집안의 제사방식이 필름 스쳐지나가 듯 차례차례 지나갔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 맞은 후 풀이 죽어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풀이 죽어 기운이 빠졌다. 축 쳐진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아무 힘도 없는 듯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도무지 우리집안 제사방식이 옳다고는 생각 할 수 없었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간하고자 했던 것이 어쩌다가 어울리지 않는 남녀 차별을 행사하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자물쇠라도 굳게 채워 놨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다. 신선한 충격에 휩싸인 채 또 다시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 할머니댁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다. 그 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꿀맛 같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눈을 감고 잠이 들기 전까지 내일은 꼭 나도 절을 하고 말겠다고 다짐 한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여느 날처럼 밝은 해가 떴고, 역시나 시골엔 닭이 시간 맞춰 울 듯 할머니도 남자들은 어서 나오라는 익숙한 말로 아침을 맞는 우리 식구였다. 남자들이 다 같이 양복을 차려입고 산소로 나서려는 그 때, 순간 용기를 내어
"여자들도 오늘은 같이 산소에 가면 안돼요?" 라고 소리쳤다.
솔직히 혼날 각오로 한 말이지만 의외로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여자들도 다 같이 가자며 어서 옷을 챙겨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가뿐한 마음으로 산소에 모두 다 도착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리 없던 나는 할머니께 이제는 여자들도 절을 올리자고 씩씩하게 말했다. 혹시나 가 역시나 가 되 듯 할머니는 그것 만큼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셨다. 복받쳐오는 설움을 억누른 채 왜냐고 묻자 할머니께서는 주저 없이 '우린 여자니까'라고 짤막하게 얘기하셨다.

너무나도 서러운 마음에 수도꼭지를 켜 놓은 것처럼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내 눈물에 당황하신 할머니께서는 등을 토닥여 주시다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그럼 일단 오늘은 여자들도 절을 올리자'며 내 제안을 허락해 주셨다.

멈추지도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을 쓰윽 닦아버리고 환하게 웃는 나를 보신 할머니께서도 활짝 웃어주셨다. 처음으로 남녀 구분 없이 지낸 제사에 남자와 여자 모두 표정이 활짝 피었다. 모두들 상상하지 못한 나의 엄청난 발언에 우리식구는 모두 모여 앉아 서로의 의견을 터놓기 시작했다. 여자들도 그 동안 서운했던 제사 방식에 대해 얘기하다 울먹이기 일쑤였고, 남자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 바빴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부터 남녀 구분 없이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 날 이후 우리집안에서 영웅이 되었고 뿌듯한 마음에 절로 어깨가 들썩였다.

아직도 가만히 앉아 그 때 생각을 더듬어 보면 왜 진작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남자들만 예뻐하시고 사랑하신 건 아닌데 여자들이 제사지낼 때 밀려 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 때 생각에 스스로 대

견스러워서 혼자 또 다시 어깨를 으쓱해 본다.

우리는 이 밖에도 남녀차별의 경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남자는 여자의 몸을 타넘어도 괜찮지만, 여자는 남자 몸을 타넘으면 재수가 없다는 이야기. 택시 운전기사가 첫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그 날은 재수가 없다는 이야기.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남녀차별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자이던지 남자이던지 차별하지 말자고 머릿속에 생각만 묻어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상황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대변해 공평하지 않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남녀차별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막고 고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여 이야기 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남녀 차별 존재 여부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 버리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밥하는 남자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13번 김현

“현아. 엄마가 진짜 해보고 싶은데, 네가 가서 애교도 부리고, 계속 말도 걸고 아빠 좀 설득해봐.”
엄마는 몇 분째, 아니 몇 주째 내방에 들어와서는, 컴퓨터 화면만 주시하고 있는 내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 매일 매일 듣다보니 이젠 똑같은 멘트만 되풀이 되는 정오의 몽롱한 라디오 광고 같아서 듣는 둥 마는 둥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
라고 침 뱉듯 툭툭 퉁명스레 내뱉는다.
인천 시내로 매주 토요일마다 붙을지도 떨어질지도 모르는 복지사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도 ‘매달 돈 탁탁 갖다 주는 데도 뭐가 불만이야.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여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야 얼마나 많이 번다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어머니 잘 모시고 애들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밥을 굶기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식의 아직 설득시키지 못한 아빠의 매서운 눈빛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다.
엄마는 얼굴을 보며 전화를 하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임에도 아직도 가부장적 요소를 버리지 못한 대표적인 시골 중 하나인 강화의 종갓집 외아들인 아빠를 만나 어린 나이에 시집오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엄마의 직업을 포기하였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땅에서 엄마의 이름 석 자 보단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엄마의 42년 생애 속 19년이라는 절반의 세월을 살아오셨다. 엄마는 아빠가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존댓말을 쓰셨고 아빠를 하늘처럼 생각했다. 우리가 먹은 설거지도 무조건 엄마가 해야 했고, 엄마는 아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고, 엄마는 언제나 당연스럽게 할머니를 비롯해 마을 친가쪽 할머니들까지 보살펴드렸다. 엄마는 19년 동안 여자, 그리고 엄마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해야 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했다.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난데없이 복지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 꼭 굳이 해야만 하겠냐던 내 말을 그냥 흘러버리고 결국 엄마는 해내고 말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었듯이 엄마가 그 첫마디를 내뱉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엄마 열심히 해!” “축하해” 가 아닌 “그럼 밥은 누가해?”였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엄마는 머릿속에 몇 번이고 되새긴 듯한 주문을 외우듯 우리에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거야. 엄마도 이제 공부도 하고 여가시간엔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 너희 엄마로서가 아니라 엄마 인생 말이야. 엄마가 복지사가 되면

아침에 나가서 너희 아침밥을 못해줄 날도 있을 테고. 야근을 하는 날에는 엄마 없이 집에 있게 될 날도 있을거야. 그러니까 더욱 너희가 엄마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스스로 하면서 엄마를 도와줘야 돼. 또 스스로 엄마가 했던 청소나 설거지도 좀 도와줘야 돼. 그래야 엄마도 걱정 없이 밖에서 일할 수 있지. 버스 놓쳤다고 시장으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도 못가니까 버스 시간 잘 보고 다니고. 라면도 끓여먹었으면 설거지는 너희가 스스로 해"

"그만둬."

아빠의 한마디가 엄마의 주문을 끊었다. 또 다시 정적이 흐르고 아빠는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셨다.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아빠의 그만두라는 말이 나의 뇌리를 자꾸만, 자꾸만 스쳐지나갔다. 비오는 날 고무대야에 빗방울이 탁 탁 떨어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저 내 마음 속 저 깊은 바닥으로 탁 탁 떨어졌다. 생각해보면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건데, 우리가 엄마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여자로 태어나 한 가정의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이유로 엄마가 버리기에는 엄마의 꿈도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것 인데,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가족, 그리고 아빠의 동의를 구해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다.

불현듯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안 도와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음이 엄마가 매일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듣던 말던 계속 나열하던 부탁 때문도 아니였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빠가 툭 내뱉고 간 말이 퉁명스럽다 느껴져서도 아니였다. 19년 동안 잃어버렸던 엄마의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다. 더 이상 딸로서가 아닌 또 하나의 여자로써 10년 20년 뒤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집안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아빠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설득시킨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는 지, 그 누구보다 엄마의 꿈에 대한 열정의 뜨거움을 잘 알기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술을 드시고 오셨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제가 다 죄송해요."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셨다. 할머니는

"난 괜찮으니까 애미가 하고 싶다는 거 그냥 하라고 해라.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괜찮다."

아빠는 조금 뒤 혼자 쇼파에 앉아계셨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나는 아빠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며칠 전 엄마처럼 몇 번이고 마음속에 되새긴 말을 아빠에게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늘어놓았다.

"아빠, 엄마가 하고 싶은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도 자기 꿈이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우리가 반대할 권한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죠. 할머니나 집안일 같은 건 걱정하지마세요. 저희 다 컸는데요 뭘.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막 말로 아빠 딸이 다섯인데 우리도 시집가서 엄마처럼 평생 남편, 시어머니 뒤치다꺼리에 집안 살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빠도 바라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빠는 아무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빠가 내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단어 아니 내 숨소리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듣고 계시다는 것을.

며칠 뒤,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다. 옆구리에는 하얀 밥통을 들고.

“이제부터 아침은 아빠가 한다.” 라는 말과 함께.

“우와, 이거 TV에 나오던 거네.”

“여보 고마워요.”

“그래.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흠”

나는 아빠의 아침밥상이 작심삼일로 끝날 줄 알았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아빠가 설득 되었고, 무엇보다 아빠의 사고방식이 그리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빠의 회식 다음날이나 과음, 혹은 엄마가 쉬시는 날은 엄마가 하시지만 아빠가 여시는 나의 아침은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피곤하셔도 6시만 되면 나를 깨우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나서 나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내가 학교에 등교한 뒤 출근하신다. 가끔 내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못 먹고 가게 될 때이면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걸 못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 가.”

라고 하시면서 등굣길을 배웅해주신다. 매일 편식만하고 밥도 잘 안 먹던 내가 이제는 학교가 늦더라도 혹은 배가 안고프더라도 밥 한 공기는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쓱쓱 비운다.

요즈음은 오히려 아빠가 더 야단이시다. 엄마가 야근하고 오시면 엄마가 쉴 수 있게 조용히 하라고 집안분위기를 조용히 시키신다. 그리고 평소에 쉴 새 없이 떠들던 케이블 방송도 쉬게 하신다. 그토록 좋아하시던 야구 게임도, 우리가 좋아하는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엄마가 쉬는 날에는 모두 쉰다.

“TV보려면 방에 가서 봐라. 엄마 야근하고 와서 주무신다. 민이, 윤이, 너희도 들어가서 놀아라.”

라는 아빠의 조곤조곤한 목소리와 함께.

물론 엄마가 케어복지사가 됨에 따라 그만큼 우리가 엄마에게 독립되어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아졌지만 그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 할머니는 노인정만 가시면

“우리 며느리가 말이여, 그래. 거기 뭐냐.. 상베이 시장에 새로 생긴 거시기 그래! 우리같이 노인네들 노냥 앉아서 사는데 있잖여. 거기댕겨. 월급도 탁탁 나오고 빨간 날은 다 놀드라구.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저번에는 지 월급 받았다고 내복을 사왔지 뭐여. 애들 가리키는데 쓰기두 모지랄 텐데 말이여. ”

라고 입에 가득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이세상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평등하게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어

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처음 부부가 결혼해 서로 다른 음식의 간을 조심스레 맞추어가듯. 처음에는 너무 매울 수도 있고 너무 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싱거울 수도 있다. 서로의 간을 기분 좋게 맞추기 까지는 몇 번 이고 맛없는 찌개를 먹어보아야한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도 상대방이 내 입맛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는 맛있게 먹어주는 예의가 필요하다. 매움, 짬, 싱거움을 느끼며 상대방에 입맛 즉 입장을 계속 생각하고 헤아려주고 배려할 때에 서로의 입맛은 맞추어 지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아침밥을 먹고 따뜻한 김치찌개 속 따뜻한 사랑까지 먹고 등교를 한다. 비록 아빠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의 입맛에 꼭 맞는 기분 좋은 아침을 매일 매일 먹으려면 서로 한발자국 씩 물러나야 할 일도 생길 것이고 혹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줘야 할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 둘씩 배워가고 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처음 같이 식사를 하는 부부가 서툴게 천천히 서로의 입맛을 맞춰가듯이. 서로의 가치를 아빠이기 때문에 혹은 엄마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구분 짓고, 어느 한 존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서로의 꿈 서로의 희망을 복돋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틀림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미덕을 말이다.

장려상 수상작품

화목한 우리집 양성평등으로부터

노형초등학교 5학년 5반 진금아

"엄마는 오늘 요리 안한다. 파업이다."

일요일 아침. 해는 벌써 중천에 걸렸고 엄마는 주무신다. 온 식구가 간만에 늦잠을 잔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아침 일찍 일어난 오빠와 나는 배가 고파 배꼽시계가 신호를 보낸다.

뒤늦게 일어나신 아빠가 주방장이 되고 나는 보조 주방장이 되어서 김치찌개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맛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엄마를 대접해야 하니까.....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다. 라면을 끓이든 외식을 하던 식사 준비는 아빠와 나 그리고 오빠의 합작품이 된다.

이렇게 일요일은 엄마가 여왕이 된다. 밥상의 좌석도 엄마가 왕 자리에 앉아야 한다며 너스레를 떤다. 엄마는 하루쯤 그런 대접을 받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욱 더 힘을 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평소에도 엄마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는 밥씸(밥힘)으로 해야 한다'는 엄마의 생각으로 항상 아침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 받는다. 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빵이나 우유도 먹는다는데..... 우리 집은 아침 식사가 항상 된장이나 김치로 된 음식이다.

우리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를 하신다. 평일에는 아빠가 퇴근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거의 엄마와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알콩달콩 생활한다. 그래서 평소에 집안일은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지 못하지만 오빠와 내가 돌아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편이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실내화 빨기, 공부방 정리하기, 그리고 오빠는 폐휴지 분리해서 버리기, 걸레 빨기, 신발 정리하기를 맡는다. 이런 일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역할이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보상도 따른다. 일이 힘들면 용돈을 좀 더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돈에는 인색한 우리 엄마이다. 당연한 보상인데도 용돈을 받을 때는 차렷 자세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꾸벅해야 한다. 일요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역할을 아빠가 맡아서 해주시고 주방 일까지 거들어 주신다.

그런데 이런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예외가 있다. 바로 할머니 집에서이다. 할머니는 양성평등을 이해 못 하신다. 아빠가 귀한 아들이고 오빠는 귀한 손자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나? 나에게는 많이 너그러워지셨다. 내가 6살쯤 되던 해에

“할머니는 나빠. 오빠는 용돈도 많이 주고... 나빠”

라며 철없는 반항을 한 뒤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신다. 엄마도 할머니가 공평하지 못한 줄은 알면서도 조금씩 변할 거라고 하시며 할머니 댁에 가면 그 곳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른다.

특히 제사나 명절 음식을 하러 갈 때이다. 부엌에서는 온통 기름 냄새 고기 냄새로 진동하고 허옇게 밀가루를 묻히며 정신없이 요리하기에 바쁜 엄마. 반면 안방에서는 오빠와 아빠가 음식을 먹고 TV를 보고 있다.

엄마의 눈빛이 이상하다 싶으면 아빠는 도와주시러 부엌에 오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만류로 다시 방에 들어가 버린다. 나도 이제는 다 커서 눈치가 빠르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빠의 애교 작전 시작. 주무르고 안마하고 고생했다고 달랜다. 엄마는 아프다고 드러눕는다.

우리 집의 양성평등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다가도 할머니 집에서는 할머니식대로 바뀐다. 하지만 부모님의 선택은 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전혀 이해 못하시던 할머니도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썰 때에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용돈도 오빠와 나 공평하게 나눠주시기도 한다.

양성평등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고 나면 생각이 변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빠는 걸레를 빨았다. 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거다. 그래야 20년쯤 후 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을 때 가족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내가 꿈꾸는 가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성평등 가족이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장미야, 미안해!

대구달성초등학교
6학년 1반 양지석

지난 수요일 쉬는 시간이었다.
우리 모둠원과 모둠장인 백장미와 싸움이 벌어졌다. 모둠과제라서 모둠원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백장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모둠장이잖아. 그리고 여자니깐 꼼꼼하게 잘 할 것 같으니 네가 하렴 ”
이라고 했다. 금방 장미는 시큰둥해지며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결국은 모둠장인 장미가 혼자서 다 하게 되었다. 이 모둠에서 남자는 나뿐이라서 장미를 시키고 나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모둠장인 백장미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려고 하였으나 ‘에이! 내가 남자인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모둠활동 시간이 돌아왔다. 이번에도 나는 내가 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모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들아, 모둠원 모두 여자이니까 니네들이 해. 아니면 모둠장에게 시키든지?”
라고 하자 우리 모둠원들은 “맞아 맞아” 하며 손뼉을 쳤다. 결국은 모둠장이 과제를 혼자서 또 다하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여자와 남자는 할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나는 남녀차별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솔직히 우리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옛 풍습을 따르시기 때문에 남녀차별을 아직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싸울 때도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다. 그러다 보니 여자인 모둠장을 얕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마음속으로 우리 모둠장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감정도 생기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모둠장을 슬프게 했을까?’ 사내 녀석이 정말 못났어.‘
지금 생각해보니 무척 후회가 되었다. 5학년 때까지 나는 양성평등이란 말은 들었어도 남자가 조금 더 편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둠장인 장미가 우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녀가 할일과 대접 하는 것과 받는 것, 모든 행동까지 같이 하면 좋고 특별히 몇 가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여자는 직업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집안일만 해야 하는 기계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알게 되는데 가끔 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치시면 숨소리도 내지 못하신다. 또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좋은 분이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 피아니스트의 꿈은 접게 되셨다. 왜 이런 일이 남녀차별인 줄을 이해 못한 나는 자신이 바보스러

워보였다. 여자는 집안일을 혼자 떠맡아 모두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여자도 능력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여자가 운동선수,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고 이소연 누나를 보드라도 증명이 된다. 이소연 누나는 우리나라 우주인 희망자 1만 8천명 중 뽑혀 한국최초 우주인이 되었다. 여자라는 성별을 버리고 능력만으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나는 크게 반성을 하고 있다. 아마 곧 우리나라의 남녀차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지구촌 세계 모두가 꼭 공갈빵 같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빈 공갈빵 같이 말이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우리 사회가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하다.

나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누나에게 정말 장하다고 박수를 치며
"누나! 누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한국 최초 우주인이니까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모둠장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니 또 부끄러워 졌다. 그리고는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었다.
'야 지석이! 너 반성해. 우리 여자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장미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 남자라고 모둠장을 다 시켜?'라는 이소연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책상으로 가서 편지지를 살며시 꺼냈다. 그리고는 모둠장인 백장미에게 몇 줄의 글을 썼다.
'장미야! 미안해 .내가 남자라고 너만 모둠 정리를 시키고 얕보고 무시해서 미안해' 그리고 참 내일 이 편지를 전해주게 될지 의문이구나."

그 이튿날 편지를 직접 주기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백장미 책상 속에 편지를 넣어두었다. 그러자 백장미가 "이거 뭐야?" 라고 하자, 나는 그냥 "응? 아니 그냥 한번 봐."라고 했더니 백장미는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읽더니 나를 보고 살짝 눈웃음을 보여 주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손을 맞잡고 같이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당당히 맞서라!

강원도 주문초등학교 6학년 2반 김 해 리

“많이 먹어라, 암... 남자가 많이 먹고 힘을 내야지” 내 앞에 반찬을 오빠들 사이로 쭉 밀어 넣으시며 할머니는 말씀 하신다. 처음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오빠들만 많이 먹으라 고기반찬을 앞으로 쭉 내미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즈음에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이 ‘그냥 또, 그러시나보다’ 하고 생각될 만큼 길들여져 버렸다.

나는 선생님과 양성 평등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차’ 하며 내 머리를 번뜩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모습을 드려다 본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그렇게 인정하고 조용했던 내 모습이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그렇게 지나갈 뿐 당당히 맞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왜, 오빠만 맛있는 반찬을 가까이 주시냐며 예의없이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니 내 마음조차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밀려나도 잘 말씀드리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오히려 양성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할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말씀 드려야겠다.

“ 할머니, 저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께 효도할께요” 하고 말이다.

요즈음은 어떤 세상인가?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남자 유치원 선생님, 남자 미용사, 남자 요리사 등 직업에 남, 녀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가 직장에 다니며 행복한 집들도 있으며 여자 장군, 여자 장관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냥 남, 녀 차별을 인정하고 당당히 맞서지 않는 자신감 없는 마음 말이다.

우리 학교의 양성 평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학년 때부터 항상 남자가 먼저 학급 번호를 받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여자가 1번부터 정하고 매년 여자, 남자 번호를 바꾸기로 하였다. 이것도 양성 평등의 인식 속에서 실천에 옮긴일 이었다. 또 청소에 관해서도 여자라서 더 많이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는 꼭 남자들은 축구를 하고 여자들은 피구를 한다.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하자고 선생님께 말씀 드려 보아야겠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운동장 조회 시간이 되면 무거운 발표대를 꼭 덩치가 큰 남자 친구들이 옮기는 모습을 본다. 가끔은 그런 남자 친구들이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럴 때 나도 여자라는 이유로 피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겠다.

나는 선생님과 비디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자라 축구를 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당히 맞서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해 하는 친구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은 남, 녀의 차이로 불편한 것이 조금 있을 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도 남, 녀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당당히 맞서라고 하셨다.

나는 꼭 그렇게 하리라 다짐해 본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말이다.

골리앗 크레인의 여기사와 병실의 남자 천사

거제신현초등학교 6학년 4반 박진현

우리학교는 올해 '양성평등연구학교'이다. 나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학교에서는 학교신문으로, 안내문으로, 홈페이지에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지만, 나는 도저히 양성평등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진현아, 어서 나와. 지금 TV에서 너가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을 방영하니까 얼른 나와 봐."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TV에선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와! 여자다! 엄마. 저 거대한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자지요? 저 보세요. 머리를 퍼머한 여자아줌마잖아요?"

화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높이를 알 수 없는 공중에서 하마같이 쩍 벌린 입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는 크레인을 바라보다가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말 예쁘게 생긴 아줌마였다. 그 때 앵커가 마이크로 아줌마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이 정말 재미있었다. 여자로서 이 거대한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오히려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줌마는 높은 곳에서도 늠름하게 이야기를 하는 데, 그 앵커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우스워보였다.

그러다가 화면이 바뀌어 이번엔 병원의 모습이 나왔다. 수술실에서 의사선생님을 돕는 간호사언니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병원의 모습은 자주 보았기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병실의 남자 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앵커의 맨트와 함께 마이크가 다가가자 그 남자 간호사는 거울 앞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모습을 다듬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앵커아저씨를 맞이했다. 병원에 들렀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서로 몰려와 마이크에다 이야기를 했다.

"아이구! 무슨 총각이 이렇게 싹싹한지 모른다우. 힘이 세어 어제 우리 영감을 번쩍 들어서 여기다 앉혀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할머니는 휠체어를 가리키며 연방 남자 간호사의 칭찬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 간호사는 처음에는 자기도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꿈도 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을 때, 남자 간호사가 되면 어떻겠느

냐는 주변의 이야기에 남자 간호사를 택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택한 간호사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누구나 간호사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겠지만 자기가 간호사가 되고 보니 병원에는 자기처럼 힘센 남자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남자 간호사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

남자간호사는 민망한 듯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 병자의 소변 줄을 끼워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보다도 환자가 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우리 가족은 TV 내용을 다 보고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말씀으론 옛날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본 내용처럼 고릴라처럼 큰 크레인을 여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병실에서도 남자 간호사 천사가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도 한 마디 거들었다.

"진현아! 너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 바로 저런 것이 양성평등의 한 부분이란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타고난 특성은 다르지만 그런 남여의 특성을 서로 잘 이해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한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학교에서 하는 '양성평등 연구학교' 때문에 보내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오늘 TV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그동안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자들에게 힘든 일을 죄다 맡긴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내 짝 운식이가 예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변태라고 친구들과 함께 흉본 일이 괜히 미안해졌다.

"그래! 도전해 보는 거야."

나는 방금 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 손을 불끈 쥐었다.

내일이 우리 학교의 전교 어린이회장을 뽑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은 전교회장은 당연히 남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아무도 출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 크레인 기사도 아줌마가 하는데 박진현이가 전교 어린이회장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

다음날 나는 선생님께 전교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때 선생님도 놀라고, 친구들은 더욱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너 우리 학교엔 지금까지 여자 회장이 된 적이 없었어."

여기저기에서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벽보를 만들고, 연설문을 작성했다. 나의 이런 변화에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놀라셨나보다. 그러나 곧 나의 선거전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컴퓨터로 나의 명함을 만들어주셨다. 나는 음악실에서 소고를 들고 와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두드리며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명함을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돌리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

"박진현! 파이팅! 너는 할 수 있어. 고릴라 같은 크레인을 움직이는 아줌마 봤지?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드디어 선거를 하는 날이 왔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골리앗크레인 위의 그 아줌마만 생각하면서 연설을 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엔 승복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개표하는 장소에서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진현아 축하해. 정말 우리 진현이 대단하구나. 엄마는 너가 그렇게 연설을 잘 할 줄 몰랐단다."

"엄마, 내 연설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나도 몰래 살그머니 교문 앞에서 내 연설을 들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신현초등학교가 개교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여자 어린이 회장이 된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골리앗크레인의 아줌마 기사와 병원의 남자 천사의 덕분이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우리 학교의 어린이회장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마운 것은 부회장으로 당선된 대석이와 연우가 너무나 나를 잘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학교를 책임지는 일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그 때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남자 부회장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어린이 회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끝.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하길……

보성초등학교
6학년 3반 변애솔

"여자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서냐?"
"네가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3월 초, 내가 자원이와 전교 회장 후보에 같이 나왔을 때 남자아이들이 나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회장이 되어 누구보다 학교를 더 잘 이끌어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내 옆을 살짝 스치고는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
"변애솔 151표, 최자원 163표로 전교 회장은……."
처음엔 내가 앞서갔으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12표 차이로 회장에서 떨어졌다.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쉬워 한동안 멍하니 투표함만 바라보았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의 당선 소감 발표가 내 귀에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애솔아 괜찮아?"
뒤에 있는 친구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고는 자원이에게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아이들의 작은 말소리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봐~역시 여자보다는 남자가 되어야 해."
"애솔이가 아깝긴 하지만 같은 남자가 되서 좋다."
'여자보다는 남자?' 웬일인지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장에서 떨어진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와 자원이는 정정당당하게 능력을 겨루어 선거에서 경쟁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들을 능력이 서로 다른 후보로 본 게 아니라, 단순히 남자 대 여자로 보았다는 사실에 왠지 마음이 아팠다.
"애솔아 힘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선거가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셨다. 그 때 나는 선생님께 묻고 싶었다.
"선생님! 제가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여자이기 때문인가요?"

라고. 그러나 나는 차마 그 말을 묻지 못하고,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애솔아, 오늘 힘들었지? 애솔이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는단다. 애솔이와 자원이는 둘 다 다른 능력을 가진 친구들인데 이번에는 자원이가 회장이 된 것 뿐이야.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오늘 너무 수고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쓰여진 선생님의 글은 나를 다시 생각에 빠지게 했다. 선생님은 나를 자원이와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로 봐 준 것이었다. 여자와 남자로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자원이에게 진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녀의 차이가 아닌, 각자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내가 자라서 아빠가 될 수 없듯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 이처럼 남자 여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남자여서 되고 여자여서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무시한 채 성별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거가 끝난 뒤 한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어릴적 작은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애솔아! 엄마 일 좀 도와드려라”

“아~ 안 된다……. 남자는 방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나와 남동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셨다. 할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관심은 유별났다. 남동생에게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나에 대한 대우는 속상할 만큼 달랐다. 같이 놀다가 울게 되어도 남동생에게는 ‘장군감‘이라 하시며 칭찬하셨다. 반면 나에게는‘여자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며 자주 혼을 내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울음소리로 남녀 차이를 두시다니……. 왠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3월초에 나와 자원이가 함께 나간 회장 선거가 그 예이다. 무조건 성이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고 적대시해야 할까? 남자아이들의 여자아이에 대한 무조건적 차별과 거부는 고쳐져야 할 태도이다. ‘여자가 무슨 전교 회장?’이 아니라 ‘남녀구별 없는 능력 있는 전교 회장!’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이건 여자아이들에게도 해당된다. 연약한 여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능력을 키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당하고 자신 있게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어른들은 여자 아이에게 간호사, 요리사, 선생님 같은 직업을 권하였

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되고 싶기도 하고 경호원 같이 흔히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나 역시 어릴 적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요즈음 나의 꿈은…….

"박준 같은 멋진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자주 물으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한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게 나의 가장 큰 꿈이다. 그래서 '박준'이라는 유명한 남자 헤어디자이너가 나의 우상이다. '박준'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머리를 잘 만지는 멋진 남자 헤어디자이너이다. 보통 헤어디자이너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어서 더 멋지게 느껴진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것을 하게 해 주신다. 그런 우리 집에서 남동생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웃으시며

"경찰이 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단다"

고 격려해 주신다. 아빠도 경찰이거든요…….

가끔씩 엄마는 아빠께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웃으면서 부탁 하신다.

"허허, 그럼 한번 해 볼까?"

아빠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선뜻 고무장갑을 끼신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빠는 집안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 그런 걸 보면 자라면서 받게 되는 남녀 차별이 문제인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건네는 어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들 마음속에 큰 편견을 자라게 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남자 대 여자? 남자와 여자?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모습일까?

백지 한 장의 차이!

바로 그것이 정답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와 같다. 신체 조건과 겉모습만 다를 뿐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별이 아닌,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만들듯, 아빠와 엄마가 있음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자냐 남자냐 하는 구분은 무의미해 질 것이다.

세상은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인간, 너와 내가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필요해요

연일형산초등학교
5-3 윤 예 흔

언젠가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한 증권회사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광고의 내용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도로에서 엄마와 어린 딸이 우산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택시를 타지 못해 무척 힘들어하는 장면이었다. 그 때, 지나가던 멋진 아저씨가 이 모녀의 우산을 들어주며 택시를 태워주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는

"어려울 때 힘이 되겠습니다. ○○증권 ! "

이라고 얘기하며 끝이 났다. 나는 '역시 남자가 힘이 세니까 바람도 이기고 택시도 금방 잡네.' 하고 웃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남자가 힘이 세서 바람도 이기고 택시를 금방 잡으면, 힘없는 여자들은 택시도 못 타냐? "

하시는 것이었다.

"저게 바로 여자들은 그저 약한 존재고 남자가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여성차별이 근본적으로 깔린 광고라니까? 광고를 아직도 저렇게 만드냐? "

라고 하시며 언짢아 하셨다. 그리고, 광고를 자세히 보면 상품의 이미지에 따라 여성과 아이들을 연약한 존재로 비유하여 광고의 이미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빠께서

"단순한 광고 하난데 그걸 뭐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보기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의 이미지가 저렇게 비추어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구세대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여자를 비하했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남녀평등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식의 미화된 방식으로 여전히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못 느끼겠지만. "

엄마의 말씀에 아빠는 아무런 대답을 못 하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듣고 남녀의 차별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보험회사 광고의 불행한 사람도 여자, 은행에서 늘 돈을 못 빌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역시, 여자였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늘 친구들에게 맞는 아이도 여자 아이들이 많은 것이었다.

이처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역사책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역사적인 습관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와 열 살 차이가 나는, 한 살된 남동생이 떠올랐다. '엄마가 그동안 아들

을 낳지 못해 많이 속상 했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생각해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생각 없이 사용했던, 차별을 두는 말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종종 있었다.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해, 여자들은 책이나 읽어라'라는 등의 말을, 남자 친구들은 아마 무심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말들에 숨어있는 의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말들이 친구들을 차별하는 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씀처럼 아마 광고나 드라마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또, 남녀차별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자들에게만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성도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해야 한다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여성 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들을 각오해야만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남성, 여성이라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마음이 맞지 않은 쪽을 만나 학교생활이 우울한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서로 협력해야 할 일에 결과가 나쁘기만 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간다면 발전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성에게 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무모한 도전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능력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들 어려서부터 따뜻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 '여자는 남자를 타 넘으면 안된다'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타 넘는 것은 안된다.' 라고 배우며 자라야 한다.

우리 집은 회사에 다니시는 엄마와 집안일을 함께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 또, 군대에 가는 언니들도 보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아저씨들의 모습도 TV에서 늘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언니가 우주정거장에서 외국의 남성 우주인들과 과학 실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차별의 모습은 느낄 수 없었고, 미래를 위해 서로 협조하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없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드물게 보이는 한 두 편의 생각 없는 광고와, 아직도 남자, 여자를 따지시는 일부 어른들의 모습,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외치고 싶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울산 이화초등학교
6-1 이 창 현

얼마 전부터 나는 친하게 지내는 여자 친구가 생겼다. 이름이 승혜이다. 우리엄마와 승혜엄마가 친해지면서 우리도 자주 같이 놀게 되었다. 승혜는 나처럼 키도 작고 마른 편이며, 머리카락은 길고, 얼굴은 동그랗게 생겨 귀엽다. 항상 웃는 표정이라 누구든지 그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도 나랑 비슷해서 우린 그냥 친구로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내가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승혜가 “나도 축구 같이 하자”라고 말했다. 그 때, 나와 친구들은 “야! 뭐 여자가 축구를 하냐?”하며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승혜가 가지 않고, 자꾸 끼워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우리 팀에 넣어 주었는데, 의외로 공을 차는 힘도 세고 드리블도 잘하면서 나중에는 흘러가는 볼을 중간에 낚아채서 골을 넣었다. 나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 하는 것이었다. 친구들도 모두 놀라며 승혜의 축구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항상 같이 축구도 하고 줄넘기, 퐁퐁도 같이 타며 재미있게 놀았다.

나도 친구들도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고 운동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 이후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했다. 그 우주인 선발에 3만 6천 206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후부로 ‘고산’형과 ‘이소연’누나가 뽑혔다. 고산 형이 예비 우주인 훈련을 받는 동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함께 이소연 누나도 훈련을 같이 받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소연 누나가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이 되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우주인이 되려면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 힘든 과정을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하면서 최초의 우주인이 된 이소연 누나는 너무 훌륭했다. 우주선 발사 후에 화상전화로 지구인들과 통화하는 이소연 누나의 모습은 너무 씩씩하고 밝아 내가 한국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처럼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새삼 양성평등을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진다. 주어진 기회에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깨끗이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남녀란 것은 ‘성’이 다를 뿐 우월관계는 이미 아닌 것이다.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가지지 못한 점들을 배우고 도와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양성평등은 집안에서부터

부광중 3학년 9반 임혜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하면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아버지, 각자의 방에서 공부를 하는 자녀들'을 떠올린다.
과연 미래에 있어서도 이상적이며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러할까??

과거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있었다. 나이 드신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어 여자는 하늘만을 공경하는 땅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은 구시대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남녀의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기 보다는 남녀를 불문하고 각자의 재능을 살리고 발휘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자의 역할 역시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업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결과로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서히 과거 농경사회의 봉건적 가족제도였던 '가부장제'에 의한 가족주의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들의 사고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멀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용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양성이 평등하지를 못하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 봉건적 농경사회의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사고 역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화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에 순응하기 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현대의 모습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큰 변화를 바라기 보다는 가정에서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 엄밀하게 평등이 조성 될 때, 보다 수준 있는 양성평등이 파급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그 발전의 원동력은 지식 산업에 있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남성만을 교육시켰기에 그들 남성만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아들이던 딸이던 모두를 교육시킨다. 그 결과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도 능력이 생겼고, 사회의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한 번 망설이게 된다.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이 증대되면 그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 어머니상을 요구한다. 사회구조는 나날이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양성평등에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거보다 더 힘든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밖의 일과 안의 일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슈퍼우먼 "으로 ...
물론 남성도 어정쩡한 사회를 살아간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사회에 여성이 진출한 이상, 가정에도 남성의 협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야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어느 집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일부러 아들에게 더 집안일을 시킨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자식을 대비시킨다고나 할까? 또한 딸에게도 아들과 같이 운동이나, 기타 집 안팎의 여러 가지를 경험시킨다고 한다. 요즘 TV를 보면 많은 남성들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살림은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겉과 속이 같은 양성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어머니만이 집안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무조건 순종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모습의 여성상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는 커서도, 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과거 '권위주의' 나 '가부장제도' 에 사로잡힌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선입견 없이 배우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정에서 평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기관인 학교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여자라서 불평등을 받은 적은 없다.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차별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는 이제까지처럼 양성평등하게 학생들을 대해주시면 된다. 학생들은 서로 서로에게 남녀차별이나, 한쪽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되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이상적인 가정상이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집안일을 나누어 일하시고, 자식들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모습.”
이는 이상적인 가정상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기본이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양성평등은 사회에서 더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날이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가는 나라.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
남성들은 삶의 파트너인 여성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존중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삶의 질이 드높은 그런 사회와 가정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자, 남자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임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야겠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비행기!

삼계중학교
3학년 김혜진

머언 옛날 이 땅의 어르신들도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제 할 일 잘하다 서로 만나 어울려 하나를 이루라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의 어울림의 가르침은 없어져버리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리라.

그런데 세상은 재미있게도 다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여자는 하늘, 남자는 땅?'으로. 그렇지만 둘 다 바람직하진 못한 것 같다. 그동안의 설움 때문에 남자를 무슨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올라타려 드는 여자들도 문제고, 행여 땅이 될까봐 벌벌 떨며 무조건 여자를 깎아내리려 드는 남자들도 문제다. 일단 여자인 내 눈엔 남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심보들이 괘씸하다.

이제, '남자간호사 고용', '호주제 폐지' 등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사회는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불평등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간다고 했을 때 인터넷의 댓글은 "여자가 어떻게 우주를 간다고?" 라는 식의 글이 더러 있었다. 남자는 우주에 가도 괜찮고 여자는 우주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리라. 하지만, 그들의 비아냥과 약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소연 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소위 현대판 딸부잣집에 속하는 우리 식구들은 누구보다도 이소연씨의 무사귀환과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응원했었다.

친척들이 모일 때면 으레 어른들의 딱하다는 시선과 '끌끌' 혀 차는 소리에 알게 모르게 풀이 죽는 우리들에게, 윙크와 함께 들려주시던 아빠의 말씀이 증명 된 것 같아 더욱 기뻤다. "남자냐 여자냐 하는 구분보단 사람으로서 본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활짝 웃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부턴 당당하게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또 반대로 얼마 전에 방영된 '싱글파파는 열애중'이라는 드라마에서처럼 물론 양부모만큼은 아니겠지만, 비록 반쪽이 부모일지라도 아빠 혼자서 끈끈한 정으로 아들을 보살핌으로 써, 아빠의 부성애도 엄마의 모성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불평등의 고정관념을 깨고 거북이 걸음이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의식으로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의 위안이 된다. 물론 몇 년 후에 군대를 가라면 다녀올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하겠지만 말이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새 틀이 제대로 짜이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양성평등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주위에서 성차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 말 중에도 성차별은 보인다.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 '남자는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여자라고 깔끔하지만은 않고 남자라고 울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부모님이 내뱉는 잘못된 말 한마디는 양성평등 의식고취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자애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여자애 글씨가 이게 뭐니?' 라는 말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이다. 남자도 머리를 기를 수 있고 여자도 글씨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양성평등의 의식에 벽을 쌓고 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고 농업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이 위치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여성들도 권리를 찾아가는 태세이다. 남자가 하늘이라면 여자는 땅에서 벗어나 이젠 그 하늘을 날아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되어 가고 있고 양성평등 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더욱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되어야 한다.

양성평등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차별을 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성이 평등할 수 있게 노력하고 양성평등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치우치지 말고 평등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의견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의견도 듣고 가족회의를 통해 모두가 의견을 표현할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아버지가 청소를 돕는 등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기관인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모둠활동으로 어떤 성별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동성끼리의 모둠활동보다는 남·여가 같은 모둠이 되어 서

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주고받으며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나라에서도 '양성평등법'을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행하라고 한다면 양성평등이 도대체 뭐고, 왜 양성평등이 좋은지를 이해하지 못해, 분명 양성평등을 좋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살이를 배울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양성의 어울림과 서로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면 남녀 불평등의 고정관념은 머지않아 '남녀의 어울림과 하나됨'이라는 새로운 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립이 아닌 어울림으로 하나됨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지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늘과 같은 남자의 든든한 버팀목과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비행기 같은 여자들이 서로 힘을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비행기'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아자!

여자 팔자 뒤죽박죽 팔자

서천중학교 2학년 2반 김 종 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셨다. 그러자 아이들이 “과학자요.”, “검사요”, “프로게이머요” 등 많은 직업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께서는 싸움을 말리며 “너희들 왜 싸우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좀 전에 싸웠던 한 남자애가 “얘가 이루지 못할 꿈을 꾸길래 제가 좀 타일렀더니 갑자기 절 때리지 뭐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여자 아이가 화를 내며 “선생님, 얘가 저한테 ‘넌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여학생에게 “네 꿈이 뭔데?”라고 물었다. 여학생은 “대통령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여러 남학생들이 “네가 대통령을 하면 나라 망친다.”,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 돼?” 라며 조롱하는 말들을 했다. 그 여학생은 울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그 애를 타이르시면서 “너희들은 여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집안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하셨다. 그러자 남자아이들은 큰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 때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나는 우리 엄마와 누나를 보며 남녀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그려보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5녀 1남 중 1남에 속하는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귀남이(귀한 남자)이시다. 어렸을 적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오셨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이시다. 어려운 일을 별로 해 보신 적이 없고 늘 상전대접만을 받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엄마와 결혼을 하셨고 어릴 적부터 몸에 벤 대접을 결혼 후에도 계속 받으시며 오늘도 굳건히 그 생활태도를 지키고 계신다. 내 눈에 비춰진 아빠는 가정일은 언제나 엄마 몫이고 아빠는 오로지 바깥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늦게 집에 돌아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심

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셨고 엄마는 화를 내며 설거지를 거칠게 하고 계셨다. 나는 누나 방에 가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다. 누나 말로는 엄마가 오늘 직장 일이 끝난 후 회식이 있어 집에 조금 늦었는데 아빠가 집에 오셔서 엄마가 오실 때까지 저녁을 드시지 않은 채로 기다리시다가 엄마가 오셔서야 엄마가 차려 놓은 식사를 하셨고, 엄마한테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 역시 화가 나서 아빠랑 못 살겠다고 성질을 내셨다고 했다. 나는 모든 상황이 짐작이 되었다. 우리 아빠는 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빠는 회식도 자주 하고 늦게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면서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었다. 엄마는 직장일 하랴 집안 일하랴 늘 바쁘시고 힘드시다. 그런 엄마를 이해 못하는 아빠가 가끔은 밉기도 하다. 그리고 엄마 직업을 아빠 직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빠의 사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요즘처럼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사회의 여성 진출이 활발한 이 시대에 여성의 직업을 가사 다음의 부수적인 것쯤으로 생각하는 아빠의 태도가 맘에 안들 때가 가끔 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엄마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 하신다. 그런데 아빠는 어쩌다 엄마가 집에 조금 늦게 오시거나 가정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직장 그만둬라'는 말씀을 하신다. 아빠는 왜 집안일을 같이 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엄마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일까? 물론 아빠의 어린 시절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아빠가 자란 시절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누나가 자라서 집안 일만 하고 누나 남편한테 엄마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으실까?

나는 이 일이 있은 후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 역시 아빠와 많이 닮은 또 다른 남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녀는 신체적인 구조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능력 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아닌 개인차가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별차이를 성차별로 인식하고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옛날이야 남성중심 사회이다 보니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었고 차별받는 일이 허다했지만 오늘날은 인종, 성별, 지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인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이제 예전의 폐쇄된 사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성들을 제 2의 존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요즘 세상에 여성의 직업을 남성 직업의 보조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말도 안 된다. 인도에 여자 수상이 있었고, 영국에 여자 수상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신라 시대때 많은 업적을 남긴 선덕여왕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여자라고 해서 남성과 차별하고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구닥다리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다. 남성들 중에서도 집안일을 여자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 중에서도 훌륭한 토목기술자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여성을 남성 다음의 성으로 보지 말고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나는 언젠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아빠, 누나는 공부 잘하고 참 똑똑한데 누나가 시집가서 집안일만 하면 어떻겠어요?”라고.
그러자 아빠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야. 시집 잘 가서 집안일 잘하면 되지 뭘 더 바래.” 라고 말씀하셨다. 아빠의 대답에 나는 너무나 놀랐다. 여자의 삶이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신의 인생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을 해야 하는 삶이 아닌가. 아빠는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빠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언젠가 “양성평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 역할, 성 역할 모두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아빠와 남편으로서, 집안일과 내조를 잘 해야 한다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역할은 서로가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차별을 없애는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남녀 모두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은 구차하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하고 싶은 건 “양성평등” 하기 싫은 건 “남자니깐, 혹은 여자니깐”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양성주의자를 비롯하여, 남성의 의무인 군대와 여성의 출산을 비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어떤 유명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코미디처럼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양성의 진정한 권리와 의무를 깨닫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선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재정립한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성차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뭐든 자연스러운게 좋아요

경상남도교육청 거창중학교 3학년 1반 최우석

"쯧쯧, 남자가 볼썽사납게 전이나 부치고 야, 당장 치워라 치워!"

"질부야, 너도 그러면 못 쓴다. 사내를 사내답게 키워야지. 어디 부엌 나들이를 시키느냐?"

지난 해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집도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음식 준비를 하느라 필요한 재료들을 어지럽게 쟁여놓고는 가뜩이나 비좁은 부엌방에서 엄마와 나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자지간에 간간히 정담을 나눠가며 손발도 척척 잘도 맞아 좋고도 행복한 분위기였다. 결단코 말하건대 정말 나는 하나도 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부침개를 부치며 엄마가 보시기에 온전한 한몫의 일손이 되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였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타지에 사시는 친척할아버지께서 미리 소식을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들른 것이었다. 다짜고짜 하시는 첫 말씀은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었고, 그 다음은 엄마를 겨냥하여 날린 화살이었다. 엄마와 나는 어디 몸을 둘 곳을 모르고 당황해 하며 애매한 동작으로 친척 분과 대면을 하였다. 일상적인 안부인사와 집안 이야기가 오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수습한 엄마가 대화 뒤끝에 의도를 했던, 혹은 전혀 의도가 없었던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만 친척할아버지에게 흠결이 잡혔던 말의 내용은 이랬다. "요즘은 남자도 다 똑같이 집안 살림도 다 할 줄 알아야지, 남자입네 하고 재면 안 됩니다." 이 말로 인하여 엄마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진땀을 빼셔야 했는지 모른다.

요즘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귀에도 입에도 친숙한 세상이다.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까지 가 닿기에는 아직도 멀고도 먼 것 같다. 아들만 둘뿐인 우리 집에서는 남자라고 청소하지 않고 여자라서 청소하는 일이 없다. 남자도 똑같이 청소를 하고 똑같이 빨래를 하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준다. 자연스레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은 터라 거부감이나 저항의식이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나도 그전에 때때로 "아마 대한민국 어디가도 남자애들이 전까지 부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하였다. 남들의 시선이 솔직히 의식되어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웃 사람이나 친구들이 오면 '하던 동작 그만!' 상태로 얼른 전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개 그런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기도 하고, 대놓고 '못난 놈' 하기도 했으니까. '남자

애가 신통하기도 하다'는 반응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를 유별나게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반갑지 않다.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는 우리 엄마가 미워지기도 하였다. 내가 엄마의 지시에 의해서나 혹은 스스로 집안일을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는데도 남의 따가운 시선이나 못마땅한 반응은 나를 움츠려 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당당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다. 양성평등도 그러하다. 내가 자연스럽게 엄마를 도와주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 된다. 구호나 주장으로서의 '양성평등'은 부자연스럽다.

가정시간에 척척 뭐든 잘 해 내는 나를 보고 교과 선생님께서 어찌나 칭찬을 하시는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절로 곧게 세워질 때가 많다. 손놀림이 섬세하고 야무진 나는 실기나 기능을 보는 수행평가 때도 덕을 톡톡히 본다. 요리실습 때면 우리 모둠원들은 나를 극진히 대접하며 모신다.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기에 나는 익숙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나를 두고 "어이, 손맛 좋은 살림꾼!"하며 놀리기도 하지만 나를 부러워하며 나를 인정해 주는 친구들이 더 많다.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우리 학급의 봉사도우미로 있는 한, 우리 교실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는 참 나에게는 좋은 교육자이시다. 마음으로 엄마를 향해 고마운 인사를 건넨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 친구들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남자 여자 뭐 다를 게 있나요? 저는 엄마를 도와주는 일이 아주 즐겁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 소리 지를 게 있나요? 그냥 우리 집처럼, 나처럼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됩니다. 뭐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지요. 끝.

아들과 딸

금명중학교 2학년
최문정

할머니의 전화

"따르릉!"

"문정아, 전화 받아라"

아빠의 외침이 들린다. 할머니 전화 말고는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는데... 또 할머니인가? 걱정부터 앞선다. 오늘도 그러시려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우리 문정이 잘 지냈냐? 공부는 잘 하고 있제?"

"네, 그럼요. 할머니도 잘 지내시죠?"

"응, 그래, 문정이 니는 너거 집의 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 알고 있제?
너거 집은 아들이 없으니께....."

"아……. 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극히 평범하고 짧은 대화지만 할머니의 전화는 항상 나에게 못마땅하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싫다는 것은 아니다. 전화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은 항상 듣기 싫은 잔소리 중 하나였다.

'왜 내가 우리 집 아들 역할을 해야 할까?'

'난 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단 말이야. 요즘은 다들 딸이 더 좋다고 하시는데'

할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면 언제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엄마, 또 할머니가 나한테 아들 역할을 잘 하라고 하셨어. 아, 솔직히 정말 기분 나빠. 엄마도 딸이 더 좋잖아?"

"그래, 엄마도 딸이 더 좋지. 엄마는 항상 아들보다는 딸을 갖고 싶었는데 문정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는데"

"그렇지? 엄마도 그런 거지?"

"그럼. 그냥 할머니는 옛날분이니까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마."

엄마는 할머니가 그냥 노파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신경이 쓰이지 않겠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머니와 만날 때마다 또 전화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기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사소한

그런 말씀 이외에는 딸이라서 여자이기에 불평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여자라는 점을 만족하며 살았다.

역차별과 남성중심사회

옛날에는 여성에게는 교육기회도 없을 뿐더러 사회 진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하며, 강한 파워력과 리더쉽으로 남학생을 압도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여학생을 더 대우해주는'역차별'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중학교의 두발제도만 해도 여학생에게 더 관대한 편이다. 남자 선생님들도 여학생을 더 예뻐하신다. 남학생에게는 좀 더 엄격해서 조금만 길어도 금방 선도부에 잡히고 마는 반면에 여학생이 두발이 어깨 밑으로 내려오면 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묶지 않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또한 보통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무겁다고 생각되는 짐은 남학생에게 들게 하며 조금 궂은 일, 하기 힘든 일을 떠맡기기에 남학생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 사회에 나가서 첫걸음을 내딛는 경우, 사회는 결코 나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들 한다.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여성을 뽑는 경우가 적으며, 승진이나 직급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기를 꺼린다.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하다가도 결혼한 후 그만 두거나 아니면 가정의 일과 병행하느라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직도 조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들의 태도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에 따른 가사를 도와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신세대 부부 중에는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남편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대부분 시부모의 반응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그렇기에 아이만 태어나면 일에, 육아에, 가사에 치여 여자는 발목을 확 잡히고 마는 것이다. 이리저리 힘든 일을 감수하다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아빠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물론 맞벌이 가정이 아니기에 엄마가 집에 계시지만, 그래도 휴일에는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엄마가 청소하시는 동안 아빠는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는 등 여가를 즐기고 계신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여보, 늦겠다. 청소는 내일 하면 되잖아. 빨리 나가자구"

"그래도 다 해 놓고 나가야지. 그럼 밥은 왜 꼬박꼬박 챙겨먹어? 씻기는? 그것도 다 내일로 미루지. 그러니까 보고 있지만 말고 좀 도와주면 되잖아."

"먹는 거랑 치우는 게 어떻게 같겠어? 오늘은 휴일인데 내일 내가 회사가면 치우면 되지 뭘 그래? 어차피 집에 있잖아."

양성평등을 아무리 외쳐 봐도 가정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산율을 높이자고 아무리 국가에서 외쳐도 이러한 불평등과 육아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바람일 뿐이다.

성차별의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성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우연히 읽은 시사적인 내용의 책에서 나오는 바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여자가 크고 작은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또, 재산 상속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아들 딸 차별이 없었으며, 아이를 낳으면 낳는 순서대로 호적에 기록하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모든 면에서 남녀가 평등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가정과 사회, 국가 모두 유교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교는 안타깝게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만들어버렸다. 이때부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은 조신하고 현모양처가 되어야만 했으며 남성은 용감하고 굳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만 해야 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되어 기사, 작가, 화가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을 뿐더러 아이를 낳을 때도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아들을 갖지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네일 아티스트, 소방관, 경찰, 승무원 하면 한쪽의 성별로만 치우치게 생각되지만 요즘은 직업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렸다. 여자만 해야 하는 일도 남자만 해야 하는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스러운 남성이 있는 반면에 남성스러운 여성도 있는 것이다. 모두 자신의 성의 성격에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나에게 맞는 직업, 어울리는 직업, 하고 싶은 직업. 성별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눈치 채지 못할 만큼 뿌리 깊게 박혀 버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기는 무척이나 힘이 든다.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

양성 평등한 사회의 실현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가장 큰 힘은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차별이 깨끗이 없어져야만 한다. 꼭 여자가 아이를 키워야만 하고 살림을 해야 하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평등한 사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은 학교는 오히려 역차별 적인 자세를 자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다. 최근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새삼 도와 위에 올라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초등교사의 72.2%, 중학 교사 68.4%가 여성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남자 교사 할당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사의 성비가 고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 · 태도 · 가치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 80%가 교사의 성비 균형을 원한다는 것이 찬성측의 의견이다. 이에 맞서 남교사 할당제가 성차별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남성 특혜라는 반대의 견도 제시되고 있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학교의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입장으로는 솔직히 반대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면을 따져보았을 때 내가 남학생의 입장이 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자 교사 할당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 한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상담을 할 때도 생리적인 문제 등을 말할 때도 같은 성을 가지 선생님이 좀 더 학생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나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는 분명 다른 생명체이다. 남성의 신체적 장점이 있다면 여성에게도 그만한 장점이 있다. 한 사람을 남자 여자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차분하고 조신해야지가 아닌 저 아이는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할 때이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문득 때 1학년 때 우리반 남학생 한명이 떠오른다. 그 남학생은 정말 여성스러웠었다. 글씨체도 반듯반듯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여성스러웠다. 노는 것도 여학생과 오히려 더 잘 어울려 놀았다. 한 번은 친구들이 남학생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이 있었다. 만나기만 하면 꽃을 피우는 우리들의 수다는 대부분 진부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근데, 걔는 너무 여성스럽지 않냐? 그렇다고 여성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남자애가 우리랑 더 잘 놀고 좀 이상해"

남자가 너무 여성스러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이미 '남자는 남자다워야만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평등하게 결혼했어요.

황간중학교 2학년 2반 이다슬

일요일 오후 6시 30분. M본부에서 하는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 남녀 각 4명을 가상 커플로 맺어 그들의 가상 결혼생활을 엿보는 프로그램이다. 4커플은 서로 다른 남녀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중 알렉스와 신애 커플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를, 앤디와 솔비 커플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서인영과 크라운J는 여우같은 아내를 표방하여 남편을 자신의 의지로 바꾸려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오리와 정형돈 커플은 예전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표현한다. 이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 우리 사회의 남녀관계에 대한 변화된 생각과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생각을 함께 살필 수 있다. 4커플의 모습은 변화된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 관계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는 일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 솔비는 앤디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얘기한다. 서인영은 특유의 애교로 자신의 남편을 제압(?)하기도 한다. 이 4커플 중 가장 문제시되는 부부는 마지막 정형돈과 사오리 커플이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집안일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사회 전형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다. 이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아내에게 "원래 그런 건 여자가 해야 돼. 우리 엄마도 옛날에 다 자기가 했데." 라고 말했다.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소파로 달려가 드러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그냥 텔레비전만 본다. 이 무심한 남편역할을 연기하는 정형돈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려 결국 지난주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대부분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정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가정에서 부부는 자녀들에게 평등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녀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협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지 서로 얘기해 보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행복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배우며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의

노력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학교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삽화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남성의 직업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성의 직업은 한정되어 있으며, 보조 역할이거나 소극적으로 묘사되어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내재되어 있는 성 역할에 대한 편견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 또 무심코 내뱉는 선생님들의 “여자가 왜 이리 조심성이 없어?”, 혹은 “사내 녀석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등의 말을 통해 성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에게는 부드러움을, 남성에게는 거칠고 강함을 강요하는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선생님들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고쳐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성 평등 교육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 불평등한 규범과 사회적 제반 여건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많은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성들은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 특정 직업 아니면 하위직에 몰려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들은 특정 전공분야에 치우쳐 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성별 분리 현상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법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법적 장애인 호주 제도를 철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호주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 아무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도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야할 세상은 21세기다. 이런 세기적 변화 속에서 세계와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사회의 건강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이다.

나는 지금 꽃다운 15살이다. 무사히 학창시절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24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약 10년에서 15년 쯤 지난 뒤의 일이 된다.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나 나나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지내고 싶다. 남자와 여자로 만났지만 결국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평등한 부부.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를 바

꾸어 보았다. 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결혼한 뒤에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다정하게 산책을 하러 나온단다. 회사 퇴근하는 남편들의 손에는 그날 저녁 먹을 반찬거리가 들려있더란다. 야근하는 아내들의 아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 옆에는 든든한 어린이집과 친절한 선생님들 항상 대기하고 있더란다. 출산휴가 떠나는 여직원들 위해 회사 사장님 나라 위해 큰일 하니 참 애쓰시겠소 인사 한마디 해주고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개빛 분수 산책나온 공원에는 고무공처럼 통통 튀는 여자 아이, 남자 아이들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이름 꽃이름 지휘자이름 극작가이름은 훤하더란다.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학교는 남자 여자 가르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억지로 가르칠 필요 없소 끝끝내 양성평등 배짱 지킨 선생님들 그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들 옳소 하며 자기 개성 발휘하며 쑥쑥 성장하더란다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아줌마가 자전거 꽁무니에 아들을 태우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허브꽃 향기

운봉중학교 3학년 1반
박희림

매화와 산수유꽃이 먼 산으로부터 수줍게 봄을 알려오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아!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 학교 화단이나 아파트 주변, 주택가 등의 여기저기에 개나리, 목련, 벚꽃들이 앞 다투어 화사한 빛을 뽐내는가 하면, 철쭉으로 온통 뒤덮인 풍경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눈길 닿는 곳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으니 정말 봄은 축복의 계절이라는 게 실감났다. 봄은 생기와 희망이 넘쳐 어깨를 맘껏 펼 수가 있기에 앞을 향하여 박차고 나갈 힘이 저절로 솟는다. 해마다 봄이면 피어나는 꽃인데도 올 봄에 유난히 봄꽃을 향하여 나의 관심과 시선이 이끌리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부터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 봄엔 꽃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꽃이 있는 곳에서 오래 머무르기도 하였다.

“어쩌면 이토록 고운 색깔과 모양으로 창조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설령 사람의 손으로 이와 똑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향기와 생명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천사와도 같고 꿈결과도 같은 꽃들을 보고 있자니,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느낌이 새롭게 와 닿았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열매가 열리는 자연의 이치에 대하여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다. 또 그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떠나보내고, 다시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가운데 한 살 한 살 연륜이 쌓여가는 거겠지.

여기에서 잠깐 화제를 바꾸어 우리학교 교실 풍경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실에서는 대체로 여학생의 주장이 강하고, 힘겨루기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이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남학생은 주로 도망 다니는 편이고, 여학생은 남학생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풍경이 자주 벌어진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무서워한다고 해야 하나. 아무렴 무섭기까지야 할까마는..... 여학생과 얽히게 되면 상황이 불리해지고 복잡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되도록 여학생을 피하려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는 어떤 여선생님께서 살며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시대가 변하긴 변했구나.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지금처럼 남녀 공학이 아니라, 여자중학교와 남자중학교가 따로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걸핏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을 놀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여학생들이 많은 수난을 당했었는데, 요즘엔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중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남학생이 오히려 여학생한테 꼼짝 못하는 걸 보니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나보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묘한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건, 강자와 약자로 짜여진 사회구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학생신분인 현주소에서는 왜 남녀 관계를 강약 구조의 사슬고리로 연결 지으려는 걸까. 아직 어려서인지, 아니면 속으로는 이성친구가 좋으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내기가 쑥스러워 그러는 건지.....

집에서 할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다가 쯧쯧 혀를 차며 걱정스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자주 있다.

"아니 도대체 요즘 여자들은 왜 저렇게 남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냐. 걸핏하면 남자를 툭툭 때리고, 남편에게 큰소리 치고, 밥도 안 해 주고, 집안에서 순전히 남편만 부려먹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응?."

할머니 말씀을 들으시던 엄마와 아빠께서는 피식 웃으신다.

"어머니, 세월이 달라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부모님들마저도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은 경시했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남편 뒷바라지로 평생을 바쳤고, 시댁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지, 돈을 벌어들일 방도도 없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남편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참고 견디며 살았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는 거죠.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차하면 여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할까봐 그걸 방지하려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차원에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만 집안일을 하는 게 억울하다면 우리 애비랑 에미처럼 둘이 사이좋게 나눠 하면 될 게 아니냐. 어디 여자가 남편을 하인 부리듯 하냐고. 옛날 같으면 쫓겨나도 열 번은 더 쫓겨났겠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텔레비전마다 남자가 부엌에 앞치마 두르고 나와서 요리를 하여 여자에게 차려주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니까."

할머니께서는 여성 입장이시면서도 딸이나 손녀보다 아들과 손자를 더 귀하게 여기셨으니, 요즘 남자나 여자들의 하는 짓이 못마땅할 것이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시긴 했어도 아직 여자는 남자 앞에서 고분고분해야 하고 남자를 떠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시는 것 같다. 여자아이는 분홍색 옷을, 남자아이는 하늘색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듯이 우리 할머니께서도 오래 전부터 굳어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려우신 모양이다.

서로 사랑한다면, 여자니 남자니 따지기 전에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군림하려고 기(氣) 싸움을 벌이는 걸까. 누구를 위한 싸움이며, 무엇을 위한 다툼인가. 남자와 여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요, 차별의 대상도 아니요, 조화와 균형의 미(美)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이다. 아빠가 남자 입장만 고집하고, 엄마가 여자 입장만 주장했다면 우리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내동생과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내동생과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엄마와 아빠 두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또한 두 분이 영역 싸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존중과 사랑으로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항상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집안일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나란히 하신다. 여자 일이니까 엄마가 해야 하고, 남자 일이니까 아빠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학교 우리 교실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좋겠다. 옛날 옛적 남존여비 사상 아래 서러움 당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발상이며,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남자들이 있다면 이 또한 어리석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건 인간사회에서 적절한 경쟁심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전투심리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성평등 교육을 따로 강조할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학교,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을 실천하자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자고 굳이 힘주어 외치지 않아도 될 만큼 각계각층에서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세계화 · 국제화에 발맞추어 가려면 양성평등이야말로 확립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다.

토실토실하고 싱싱한 매실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매실나무는, 운치와 품격을 갖춘 매화를 3월부터 서둘러 피워내고, 탱글탱글 빨간 산수유 열매의 결실을 위하여 산수유나무도 3월부터 노란 산수유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식물이나 동물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법이 없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다.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볕과 영양이 있어야 하고, 비가 알맞게 내려야 하며,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웅(雌雄)의 존재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구비되었더라도 암수 중 하나가 빠지고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종족보존이 끊기어 멸종에 이른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암수가 다 있다 해도 어느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사

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또한 건전한 마음가짐을 남녀가 공히 소유하지 못한다면, 한 가정 한자리에 있다 한들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절대불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감싸주며 영원히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이기주의를 키워낼 뿐이다. 한 번 지면 영원히 지고, 한 번 이기면 끝까지 이긴다는 불안감 같은 것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인생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인 것을..... 독점이 아니라 공유인 것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와 여자가 공동우승하기를 바란다. 패자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어느 면에서는 남자가 우수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자가 우수하게 태어난 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너 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옛날에는 여자를 비하했고,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능력신장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추세일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인격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차이, 능력이나 남녀차이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누가 누구를 차별하며, 누가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 남녀차별 의식을 말끔히 버리고,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지속되는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양성평등이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아! 여자가 강해졌다고 해서 힘자랑하지 말고, 남학생들아! 남자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라. 저토록 향긋한 허브꽃의 향기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드는 건 자웅(雌雄)의 대결이 아닌 화합이기에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세상은 남녀차별의식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5월의 허브꽃 향기! 운봉의 허브축제가 오늘따라 자랑스럽다. 운봉중학교는 물론 운봉읍민들은 양성평등에 앞서갈 걸로 확신한다. 허브 향기가 운봉의 하늘을 맴돌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여학생과 남학생,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직원과 남직원, 그리고 여선생님과 남선생님들이시여! 어지러울 정도로 싱그럽고 풋풋한 허브향기처럼 우리도 '양성평등'이라는 향기 짙은 꽃을 활짝 피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삼촌의 당당한 직업, 미용사

경남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2반(일본어과) 이은영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난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갔다 오너라. 사내자식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여자들 머리나 만지는 직업을 가지노! 내가 그 놈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창피스러워서 원!"

우리 삼촌은 미용사이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많았는데, 친절하고 솜씨도 좋아서 단골이 많다. 그런 삼촌이 미용실을 개업하는 날인데 아무리 가자고 해도 할머니께서는 막무가내이시다. 다른 분들께서 아들 덕분에 머리도 공짜로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야기하시면 버럭 화부터 내신다. 할머니께서는 삼촌이 미용사 직업을 택하신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단지 삼촌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전에는 직업에 남녀구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여자 운전사, 높고 험한 산을 정복하는 여자 산악인,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남자 디자이너를 많이 볼 수 있듯이 직업의 남녀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삼촌이 미용사인 것이 부끄럽다 하시며 남들에게는 삼촌이 아예 논다고 하실 정도다. 나는 오히려 남자 미용사가 귀하던 시절에 자신의 적성을 살려 남의 이목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삼촌이 자랑스럽기만 한데 말이다. 자신의 적성은 무시한 채 남들의 이목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달리 얼마나 당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인가! 삼촌이 지금이야 이렇게 미용실 개업을 하고 미용사가 되었지만 가부장 문화에 젖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삼촌이 미용사가 되기까지의 고생은 말도 못했다고 한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남자 미용사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남자망신 다 시킨다. 미용이 뭐고? 미용이!!"

할머니의 반대 때문에 삼촌은 몰래 배워야 했고, 어디서 상을 타와도 당당히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어머님,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어머님께서 안 가시면 얼마나 도련님이 섭섭하겠어요?"

"할머니, 같이 가아."

우리집에서 할머니의 고집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장손인 막내 동생 홍민이까지 동원되어서야 할머니께서는 못이기는 척 따라 나서셨다. 물론 우리는 차안에서 '모름지기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에게 맞는 일을 해야지!' 하시는

할머니의 강의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했지만 말이다.

삼촌의 가게는 벌써부터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께서 오셔서인지 삼촌은 유난히 즐거워하시며 손님들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셨다. 삼촌 특유의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섬세함을 요한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여자 직업으로만 생각해 왔던 미용사! 할머니께서 펄쩍 뛰시는 이유 또한 그것, 한 가지이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시고 나자 삼촌은 할머니께 파마를 해 드리려고 했다. 그러자, "아서라 아서. 멀쩡한 머리 망치지 말고 됐다. 나는 내 단골 미용실에 가서 할란다." 하시며 거부하시는 할머니! 그래도 삼촌은 능숙한 솜씨로 커트를 하고 파마를 하셨다. 남녀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괴로웠을 법도 한데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니만큼 삼촌은 너무나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삼촌의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직업을 결정할 때는 남녀 구별, 학력, 보수, 명예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취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속으로 망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시던 할머니께서도 완성된 머리를 보시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셨다.

"니가 잘하는 것도 있네. 앞으로 밥은 안 굶겠다. 그래도 허구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미용사란 말이고"

그냥 잘 한다고 칭찬해주시면 될 텐데 결국 핀잔을 주시는 할머니이시다. 무슨 직업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할머니께서는 무의식중에 남녀를 구분짓는 말씀을 불쑥불쑥 하신다.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를 어른들 세대에서는 쉽게 떨쳐 버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장차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우리들은 양성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만 한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젠 학교생활에서는 남녀차별을 별로 느낄 수 없다. 예전에는 앞 번호는 남자, 뒷 번호는 여자였었는데 요즘은 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매기고 급식 당번도 똑같이 배정한다. 연약하다고 남학생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으며, 어머니는 가정, 아버지는 기술을 배우던 때와 달리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자연스런 학습과정이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못질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구 분들에게 삼촌자랑을 늘어놓느라 바쁘시다.

"남자라고 미용사 못하라는 법도 없더라.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우리 아들 머리 만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학교 졸업하고 취직 못해서들 난리인데 미용사 되겠다

고 내 속을 그래 긁어 놓더니 요즘은 오히려 그 놈이 효자 노릇한다네. 허허,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머리하러 가자. 잘해주라 할 테니…….”

할머니의 말씀에서 할머니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다. 남녀의 직업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야만 한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을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 일 것이다.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1세기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이다. 남자냐, 여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우리 삼촌처럼 자부심을 갖고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못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양성 평등의 기회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남자가 무슨…….’, ‘여자가 무슨…….’ 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개척했던 삼촌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끝.

황금알도 암탉이어야 낳는다

논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신희

중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의 제삿날 있었던 일이다. 전통의례에 엄격한 큰아버지 덕에 우리 집안의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옛 조상님들이 행하신 그대로의 정석을 따랐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별에 따라서 절을 올리는 횟수가 틀리다거나 혹은 손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세세한 가르침까지 전부 받으며 자랐다.

그 날도 평소와 같이 별 탈 없이 제사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 준비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손 오빠였다. 오빠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근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가족들 모두는 먼 곳에서 힘들게 국민의 지팡이 일을 하는 오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격려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사가 시작되려던 참에 온 가족들이 거실로 모였다.

그런데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할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릴 정종을 쳐다보던 큰아버지와 어른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으나, 곧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평소에 제사 때마다 상에 술을 올리던 장손 오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일은 무조건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배우지 않았었지만 항상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때마침 장손 오빠가 없는 상황에서 왠지 모를 의무감 같은 것을 느낀 나는 별 생각 없이 툭 내뱉었다.

"아빠, 오늘은 그냥 내가 할아버지께 술 올리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큰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대로 거실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때 나는 내가 한 말이 큰아버지께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큰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손에 든 정종을 천천히 내미셨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큰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큰아버지는 내 옆의 겨우 다섯 살배기 사촌동생에게 정종 병을 건네주신 것이다.

그 때 나는 그 상황에서 왠지 모를 화가 울컥 올라왔다. 아무리 절차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꼬마애가 뭘 안다고 저런 일을 시키는 걸까? 마치 위아래를 건너뛰어서 뭔가 무시를 받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때문에 슬슬 화가 나기 시

작했던 나는 결국 그곳이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이었다는 사실도 잊고는 그만 언성을 올리고 말았다.

"뭐야,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되는 거야? 나는 여자고 쟤는 남자라서?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귀찮게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난리야! 그러면서까지 제사를 지내야 돼? 정말 바보 같아!"

철썩! 느닷없이 아픈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리면서 나의 놀란 두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눈물 때문에 흐릿해진 눈앞에 큰아버지의 단단히 화가 나신 얼굴이 보였다. 솔직히 나는 그 때까지 내가 큰아버지 입장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손 오빠나 어린 5살짜리 사촌동생은 남자니까 되고 나는 여자니까 안 된다는 논리. 서러워진 나는 결국 할아버지의 제사를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어버렸다.

아니, 대체 왜 요즘 세상에서까지 남자니 여자니 하면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마 이러한 성 차별적인 풍조는 우리나라에 처음 삼국시대에 유교가 들어오고서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조선시대부터 정치적 이념으로서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위계질서와 예절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 어지간히도 들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유교는 성별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는 무작정 현모양처의 조신함을 요구하고, 여성은 남자를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그 한계점에 속한다. 유교는 꽤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이념으로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부터의 여인들은 모두 남성에게 헌신하는 존재로서 점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설명하자면 정신과 용어 중에서 '학습적 무기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일정 압력을 받았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랜 기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쉽사리 탈출을 마음먹기 어렵듯이, 우리 역시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익숙해져버려서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여성들은 학습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던가, 남자는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는 등등의 내용 말이다.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잘못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고치

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옛말에 '못 고치는 것은 없으니, 잘못을 알았을 때 고치라.'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고치지 못할 것은 없다. 수백 년간 여성들이 받아온 차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 살 버릇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회도 변해가고 문화도 변해간다. 아직은 이곳저곳에 조금씩 성 차별의 곰팡이가 남아있지만, 이제 조금씩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여성을 귀속(歸屬)적인 물품화 시키던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한국 여성단체인 '여성 연합'의 노력으로 2달에 불과하던 여성의 산후 휴가일이 3달로 늘어났다. 비록 이제야 겨우 6달인 국제 기준치의 절반에 도달한 셈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거점으로 천천히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작정 감정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모든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서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앞서 내가 할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화가 났다고 해서 무작정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확실히 나의 잘못이다. 서로 자신만을 내세우다보면 갈등이 깊어질 뿐이고 사이도 멀어지며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해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평등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양팔저울이 조화를 이루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팔저울에서 한쪽에 너무나 많은 것을 올려놓는 다면 치우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성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준다면 똑같이 평등해지지 않을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차별하기 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장점으로 본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양성평등이라는 주제 하에 이야기가 시작되면 여성의 권리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성이 지난 수백 년간 받아온 남성중심 사상의 억압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뚱딴지같은 속담이 다 있을까.

좀 더 생각을 넓게 가져보자. 암탉이 울었다고 해서 집안이 망한다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가 뒤따를 수 없다. 하지만 암탉이 운다는 것은 달걀을 낳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정말로 닭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까? 일단 황금알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자. 황금알이든 보통 알이든 일단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은 바로 암탉이다. 마치 수탉만이 인간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의 속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백 년간의 편견에서 깨어날 때이다.

- 학교에서 시작하는 양성평등 첫걸음 -

수원경성고등학교 2학년 3반
박 해 성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상생활을 담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갈 무렵에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니, 저런 삶도 있었네. 나는 남자와 여자, 그 둘을 완전히 별개의 서로 다른 존재로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편협한 나의 사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남자의 직업은 네일 아티스트였다. 그 남자는 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아무 거리낌 없이 진지하고 즐겁게 손톱, 발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성껏 다듬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모양이나 그림을 그려 넣어 예술적인 감각을 맘껏 발휘하였다. 손톱을 손질하는 그 남자의 표정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밀한 작업은 여성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섬세하고 정교한 손놀림과 부드러운 손길을 원한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던 손님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자의 섬세한 손놀림에 놀란 표정이었다. 반신반의 했던 손님들에게 그 남자의 예술적 감각이 다른 어떤 여자의 감각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게 느껴졌다. 이 남자는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 있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 여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어느 자동차 정비소, 타이어를 몇 개씩 들고 다니는 여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남자도 들기 힘든 자동차 정비제품들을 들고,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어 보이는 기계장치를 자신 있게 만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 여자의 모습에 어떤 아주머니들은 넋을 잃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들은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그런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남자와 그 여자, 그들은 분명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즐겁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만은 분명 최고라 할 만한 모습들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은 '남자에게도 저런 정

교한 능력이 있구나. 여자에게도 저런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정교하고 섬세한 능력,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만 생각해왔던 힘이 단지 그들의 성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 고유의 능력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여자라고 해도 세세한 것을 다루는 데 미숙할 수 있으며, 남자라도 힘을 쓰는 데 있어 여자보다 못한 이들 또한 있을 것이다. 세심함은 여성적인 것, 물리적인 힘은 남성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지 못하며, 나아가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면 남자와 여자, 그들의 성별을 떠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양성 평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학교에서의 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과 교과선생님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생활 지도나 교과 지도를 할 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시간의 경우에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시키고 여자라고 해서 걸레질과 같은 가벼운 일을 시키기보다는 남녀 짝을 지어 주어 서로가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교과 지식을 가르칠 때에도 남녀의 성역할을 특정하게 규정짓기 보다는 '집안 일하는 남편, 일 나가는 아내'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강으를 열었으면 한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고의 틀을 정립하고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선생님들에게서만 받던 지도와 수업에서 벗어나 외부 강사와 함께 양성평등을 생각해보는 기회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양성문제에 다가가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상매체에 익숙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용 비디오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고정된 사고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양성평등 문제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뛰어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역할에 따르는 삶이 아닌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멋진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양성 평등에 대한 자신만의 깊은 사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별로 주어진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역할놀이를 해보는 것도 또한 큰 도움이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남자의 일이라 생각했던 역할과 여자의 일이라 생각했던 역할을 바꿔서 해보고 거기서 느낀 어려움이나 생각 등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은 어쩌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백 번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적 교육보다 학생들의 마음에 더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성평등’,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그들의 평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다면, 이는 결코 안타까워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올바른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 다만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서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고 이해와 배려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양성평등’의 세상 또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양성평등’이라는 말까지 어색해지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 확신한다.

또 하나의 탄생의 열매

삼천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4반 김혜련

2년 전이다. 방음처리가 채 안되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 우리 집 현관 앞. 여느 때 처럼 문을 열기 위해 가방에 있던 열쇠를 꺼내려 문간에 잠시 서 있었다. 그 시간이면 늘 들려오는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어김없이 엄마의 원망 섞인 콧노래가 여전히 흘러나왔다. 부엌에서 나오는 부글부글 곰탕 끓는 소리, 이에 질세라 누군가에게 저항이라도 하듯 '쨍!'하며 엄마가 유리그릇 맞부딪치는 소리. 여러 소리가 현관문 틈새로 비집고 나왔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라서인지 항상 '나지막한 콧노래와 그릇소리가 맑게 어우러진다면 어떨까?'하는 궁금증을 갖곤 했다.

현관문을 열자 내 예상대로 그렇게 그 날도 엄마는 미간을 펴지 못한 채, 그리고 두 손에는, 까칠하고 불어 튼 손을 가리기라도 하듯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 아빠의 재떨이를 비우셨다. "담배 좀 그만 피우소! 담배 좀!" 늘상 식사 후 피우시던 담배를 새삼스럽게 화제삼아 화풀이 하는 엄마의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것도 잠시, "그거 비우는 것 하나갖고 얼매나 힘들다고 그래샷노! 대게 잔소리 해샷네." 여느 때 같았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을 아빠도, 오늘은 하시는 작업이 잘 안 풀렸던지 괜한 언성을 높이셨다. 많이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아빠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애교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날은 그냥 한마디하고 넘기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았다. 아빠의 표정은 경찰서에나 붙어있는 범죄자만큼이나 무서웠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랬다.

항상 아빠와 실랑이가 날 것 같으면 그냥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참고 마는 여린 대한민국 아줌마인 엄마도 그날만큼은 무슨 큰 마음을 먹었는지 같이 언성을 높이셨다.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오면 몸이 천근 만근이다. 어떨 땐 한참 어린놈들한테 쌍욕까지 들어가면서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남 돈 벌기가 어디 쉽나 싶어 꾹 참고, 일하고 오는데 자기 먹은 밥그릇 하나 씻어놓으면 어디 죽을까 봐서예…."

엄마의 말끝이 흐려지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의 삶의 여운인 서러운 눈물이 떨어졌다. 항상 보여주던 매서운 눈초리가 아니었다. 그때 왜 그렇게 엄마 눈가의 주름이 제주도 산굼부리 분화구보다 더 깊어보였는지 모른다.

나도 함께 소리 없이 울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엄마의 49년 세월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적어왔던 엄마의 낡은 일기장으로부터, 퍽이나 좋았던 감정전달이 뚜렷한 글솜씨로부터 대충 어렴풋 짐작했었다. 그러곤 생각했다. 아빠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내 아빠지만, 나의 남편만큼은 아빠와 가치관이 좀더 다른 사람이여야한다고…. 그때

굳게 마음먹었다.

아빠는 시골마을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이다. 남자는 무조건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떠안아야 하고, 그 대신 빨래나 청소 이런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강한 고집이고 개똥철학이었다. 굳이 거창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불합리하고 어긋난 생각이 강하게 은연중에 들어났다. 아버지의 말이나 행동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차이가 아닌 차별에 대한 생각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물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도 많았을 것이다. 시골집안의 장남으로서 강한 남아선호사상의 틀에 사셨던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서 부엌은 출입금지인 구역으로 자리 잡았을 터였다. 옛 보수적인 틀이었던 남아선호사상은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력이 강한 아빠로부터 생생히 느끼고 있다. 요즘 세상에 아직까지 성 역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 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양성평등'이란 어휘에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넌 여자가 되가지고 홀리고 먹니" 라는 말에 "그거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인데요! 그럼 남자는 홀려도 되나요?" 하고 반박하는 사촌동생의 코맹맹이 소리에서부터, 드라마 속 단골 대사인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돼" 라는 철부지 남편의 말에 '왜? 여자도 직장 가질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살림을 못할 수도 있지!' 라고 되받아치는 것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이제는 양성평등의 저 끝 대척점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내 개념에서까지 양성평등의 의미는 작지 않을 만큼의 꽤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양성평등이란 논지를 갖다대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생태학적인 입장이 존재하듯 남자와 여자사이에도 서로의 조화, 존중하는 자세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치자, 남자의 병역의무와 여자의 임신으로 양성평등을 설명할 것 같으면 과학에서부터의 생물과 물리 그리고 윤리까지 다시 배운 뒤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만든 조물주는 남자는 선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강한 물리적 힘을 주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에게는 생명의 탄생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성차별, 성별차별이 아니라 '성'차이인 것 이다. 사전에서도 달리 정의하듯이, 차별과 차이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 차이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공통점에 중심축을 두어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조금은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며 또, 보충해 주고 배우며 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이란 것을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혹시 아는가? 결혼의 시초가 성별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시적의 수단이었는지….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무장갑이 조금 작아 억지로 낀 것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빠가 부엌에 서계시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빠의 그 어느 때의 모습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아직도 “내가 꼭 해야되나” 라며 한마디 투덜대긴 하시지만, 생선가게에서 마치 “옛다 한마리 더!” 하며 후한 인심을 쓰듯이, 점점 보수적 관념을 진보하는 세대에 맞춰가고 있는 아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날 밤 창밖 가로등빛 뒤로 보이는 저 산, 그 뒤에 걸려있는 달은 매일 이 시간에 뜨는 매한가지 달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더 밝아 보였다.

엄마의 일기장 그 하얀 여백에 새로이 그려질 약간은 촌스러운 모나미 검정색 볼펜잉크가 아른거린다.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며 그리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넘나드는 새로운 가치관속에 피어날 내일의 또 하나의 탄생열매를 생각하며…. 끝.

누가 먼저 변할까?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6반 21번 연 은 정

“선생님! 종 쳤는데 안 들어오세요?”
휴… 벌써 이걸 가르칠 때가 됐구나,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온다. 여자 반에선 반응이 괜찮은데 남자 반은 웬만해선 동의를 얻기 힘들다. 우리가 왜? 어째서 그래야해? 이런 반응이 먼저니 수업을 앞두고 눈앞이 깜깜한 건 당연하다. 남녀칠세부동석에 가부장적 사회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내려왔다지만 이젠 슬슬 인식이 바뀌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은근히 보수적으로 나온다.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우리는 보수적이에요! 외치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좋다 싶으면 개혁하라 소리치고,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으면 결사반대하니까 발전이란 게 없는 거다. 난 양성평등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고민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줄줄이 남자 반 수업만 가득하다. 늦게 들어왔다며 귀엽게 쫑알거리는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교탁으로 올라가 평소처럼 인사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수업할 페이지를 펼치고 남녀의 가사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시끄럽게 토론을 펼쳤다. 토론이라기보다 말싸움과 같은 기류가 나와 학생들 사이에 흐른다.
“헐~ 남자들은 원래 무게 잡고 앉아있으면 되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애들아.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이젠 남자와 여자는 같은 높이에 섰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사분담에 변화가 있어야 해.”
“저희 아빠는 맨날 티비만 보고 엄마가 다 하는데요?”
“너희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해.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적었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난 아이들을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내 수업은 아이들에겐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여전히 수직적인데 사회는 평등을 지향한다면 미래를 향해 걷는 걸음들이 불안정하지 않겠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종이 울렸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왔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피곤해 보여서 차마 불평을 쏟아내지 못하고 엎드렸다. 이런 수업일수록 내가 더 열성적으로 뛰어들어 가르쳐야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뀌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다시 힘이 솟는다.

그 이후 수업들은 좀 찝찝하긴 해도 꽤나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처음 수업한 학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을 외쳤고 어느 정도 나와 양성평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았다. 물론 몇몇 아이들은 나와 끝까지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왜 여자애들보다 더 맞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차별이에요. 여자애들도 똑같이 때려야죠!”

“뭔가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야 얘들아. 남자랑 여자 몸이 똑같아? 아니잖아. 차별과 구분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래도 마지막에는 여자 반 수업을 들어간 덕택에 많은 에너지를 얻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여자 반에서는 나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남녀 불평등의 예를 들어주었다. 아무래도 여자라 그런지 남녀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열띤 대화중에 발견한 독특한 사례가 있다면 놀랍게도 체육복이었다. 나야 교사니까 남녀학생들이 단체로 구입하는 체육복을 입을 일이 없어서 그 속에 결여 된 양성평등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들의 불평, 불만은 라인이 드러나는 작은 체육복이더라는 말이었지만 말이다.

“너희들 말이 맞아.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입은 걸 보면 남학생들에 비해 좀 끼더라구. 그건 여자가 2차 성징을 지나면서 골반이 발달해 넓어지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야. 물론 너희가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것도 있지? 하지만 그 점을 생각했다면 여학생들 체육복은 여자의 체형에 맞춰서 나왔을 거야.”

이곳저곳에서 맞아, 맞아 웅성거렸다. 웅성거림이 멎고 내가 남녀차별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질문하자 또다시 시끌시끌해졌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종이 울리고 교실을 벗어나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교무실에 도착해서도 계속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고 유난히 싱글벙글한 나를 보며 다른 선생님들도 웃었다. 심심찮은 농담도 주고받고 타는 목을 달래려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수업에 나 자신을 향해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은 기분이다.

“저기요, 선생님….”

한참 내가 공상에 빠지려던 순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온 한 여학생은 뒷말을 채 잇지 못한다. 무슨 걱정이 있나, 상담을 받고 싶나 해서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으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한다. 계속 시선을 내 뒤의 남자 선생님께 돌린다. 그러다가 결국 노트북 옆을 굴러다니던 펜을 집어 자신의 손바닥에 작게 쓴다.

‘생리대 있으세요?’

“어머. 매점에 없어?”

“안 팔아요.”
“화장실에서 돈 넣고 뽑아 쓰는 거 있잖아.”
“그거 빈 통이에요. 무슨 폼으로 가져다 둔거 같아요.”
머쓱해진 나는 얼른 서랍에서 생리대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줬다.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는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피곤해 보인다.
여학생이 나가자마자 유난히 날 잘 따르던 남자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며 선배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으니 어서 오라는 것이다.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수업을 마무리하기도 해서 날아가듯 약속장소로 갔다.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후배와 웃으며 인사하고 떠들다가 본론으로 넘어갔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어, 선배. 나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거 해.”
“의사?”
“말고.”
“뭐가 있지?”
난 가만히 후배의 말간 얼굴만 쳐다봤다. 후배는 예상했다는 듯 웃기만 했다.
“경찰해?”
“정말 못 맞추네. 간호사.”
“남자가 간호사를 해?”
난 내가 방금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라 입을 다물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남학생들에게 양성평등 설명이 먹히지 않는다며 우울해하던 내가 후배 앞에서는 남자는 간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가. 후배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다 선배처럼 대답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걸 보곤 천성 간호사가 따로 없데. 일한지 얼마 안됐어. 한번 우리 병원에 놀러와.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프면 바로 오고.”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더 환자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 의사과정을 밟다가 간호사로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말고도 환자들이 어색해해서 후회 할 번도 했다는데 결국 지금은 여자 간호사들보다 더 가까이 지낸다고 웃었다.
후배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는 내내 난 내 정신 밑바닥에 깔린 양성평등 의식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난 남자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후배는 이미 그 고정관념을 깔끔히 부셔버린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무엇인가?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난 여전히 사회의 성에 불평등한 시선을 주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에게 어색함을 느끼고 동의 표를 주지 않았던 걸까? 그 무엇이던 간에 난 내가 먼저 의식을 고쳐야 함을 깨닫

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은 깨어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다. 정말 머릿속 모든 불평등한 생각들을 없애려면 무의식적인 행동부터 생활까지 고쳐야 하겠지. 우리는 아마 오랜 시간을 의식개선, 행동개선에 쏟을 것이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렇게 작은 사회들이 변화한다면 큰 사회도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진실 된 양성평등을 외쳐야겠다.

양성평등의 조화

삼례공업고등학교 1학년
장 정 균

꽃과 나무는 다르다. 하지만 제각기 아름답다. 꽃과 나무가 혼자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함께하는 조화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 넓은 들판의 자연스러운 풍경이든, 좁은 정원의 의도적인 조경이든 간에 저마다 멋을 지닌 꽃과 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보기가 정말 좋다. 우리도 그렇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계 없이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향기로 뿜어냈을 때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어른들은 예전에 비해서 남녀 간의 차별이 많이들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고 남녀가 하는 일의 구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과 문화적 토양 속에 뿌리 박힌 의식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때 그 낡은 선입견들이 종종 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속상하게도 만들지만 우리 아버지와 말할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몇 개월 전의 일이다. 내가 어느 덧 중3이 되어 고등학교의 진학문제로 아버지와 의견이 대립되어 싸움이 잦아졌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폭이 좁아져 고민을 하는 도중 삼례공업고등학교에서 홍보차원으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학교는 이렇다”라고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셨다. 난 평소에 미술 분야를 좋아해서 삼례공업고등학교에 섬유디자인과가 있다는 걸 알고 꼭 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러한 뜻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이 학교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누나가 2명 있고 내가 태어나서 남자인 나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크게 실망을 하셔서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공업고등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죽기살기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이 학교를 가게 해주셨다. 하지만 과 선정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남자는 남자답게 ……. 남자는 이래야해 !! 남자가 미술해서 뭐하겠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셨다. 어렸을 때에도 미술하고 싶다고 때를 썼는데 미술학원을 몇 개월 다니고 만 것이 전부였다. 드디어 양성불평등 문제가 생겼구나. 이 참에 내가 아버지에 생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

제가 미술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어요"라고 설득을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포기를 하셨는지 "너 인생은 네가 사니깐 너 마음대로해라 ……. 그리고 아버지 탓은 하지마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 이래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지금은 내가 삼례공업고등학교에 와서 학급실장도 하고 섬유디자인 작품에 출품도 하면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더니, 아버지도 날 뿌듯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도 양성불평등이라는 고정관념 틀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어느 새 우리세대에게도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모양이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남자답게'나 '여자답게' 라는 말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시때때로 브레이크를 걸어오기도 한다.

"남자는 꼭 이래야해" "여자가 감히……"라는 등 이러저러한 편견이라는 사슬에 묶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관습적인 의무를 물려받고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다. 남녀 차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 역시 그 생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관습들을 물려주게 될까봐 걱정이다.

세상의 외형이 변하는 속도는 정말로 빠른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속도는 더딜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일이 더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것 같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다니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어머니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에 당당히 서고 싶으셨던 것 같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어머니의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내야만 하셨다. 우리 아버지와 내 위로 누나 둘을 위해 먹이는 일이며, 입히는 일이며, 일을 전담하셨고 집안일과 여러 가지일을 하시느라고 분주 하셨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였을 땐 나와 누나들 때문이었는데 정작 어머니 자신의 일로 만족을 얻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았다. 주변에서 불러주지 않던 어머니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신다. 일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자신의 일이라서 그런지 어머니는 내색조차도 안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서도 아버지는 아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개방적이어서 고정관념이 그래도 많이 없으신 것 같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성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인 것이지 차

별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별로써 개인의 능력을 지레 짐작하고 평가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더 이상 우리후손들이 물려받지 않기를 바란다.

양성불평등은 우리세대에서도 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이고 각자 이름을 가진 동등한 개성적 존재로서,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갈 사람들이다.

5월은, 계절에 맞추어 피어난 예쁜 꽃들과 싱그러운 연 초록빛 나무들이 어우러져 항상 보는 집 앞의 꽃과 나무들이지만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인다.

웅 남

울산 무거고등학교
2학년 최 유 리

지금부터 시공을 초월한 담배 피는 호랑이와 쑥과 마늘 먹는 곰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조금은 미련해 보이는 곰이 옆에 있는 호랑이에게 질문을 했다.

"이봐, 호랑이. 여자가 되는 게 좋을까? 남자가 되는 게 좋을까?"

귀찮아하다 이내 입을 여는 잘생긴 호랑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보고 오게나."

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굴 입구로 발걸음을 어정어정 옮기는 곰. 동살에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주 오래전 환웅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동굴 밖을 나선 곰은 현대문명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을 터, 호랑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무렵, 저 너머 헐레벌떡 뛰어오는 곰이 보였다.

“이보게, 호랑이!”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다.

“응, 그래 어떻던가?”

곰의 눈이 동글해졌다.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려가 보니 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군.”

다소 지쳐 보이는 곰이 말을 이었다.

“인간들은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性)중에 대부분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르고, 여자라는 이유로 일거리도 잘 못 구하고.... 게다가 돌멩이만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보니 이름순서들이 죄다 남자아이들 먼저였어. 이 뿐만인 줄 아는가? 조금 더 커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여자아이들은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치마를 입는 게 교칙이더군. 또 으음.. 신기한건 혼인한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며 밥이며 등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네”

극도로 흥분한 곰을 바라보던 호랑이가 입을 열었다.

“그래, 할 말 다했는가?”

고개를 끄덕이는 곰.

"호랑이, 자네 그걸 알고 있었는가? 사실 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컸었다네. 그런데 큰 일 날 뻔했지.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인 듯 해”

이번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곰.

“킬킬”

갑작스런 호랑이의 웃음소리에 어이 상실한 곰.

“왜 그러는가?”

곰이 투덜대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것 참, 우리 후손들이 가여워서 말이야. 역사를 다시 쓰게 생겼어. 웅녀는 어디로 가고 웅남이 웬 말인가 말이네”

호랑이의 자발스런 웃음에 곰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여태까지 자네 내말을 건성으로 들었군. 난 진지하단 말이네!”

곰의 말이 끝나자마자 먹잇감을 본 양, 호랑이의 눈이 번뜩였다.

“자네야말로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었구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가. ‘웅녀’가 없었다면 단군은 어떻게 생겼겠소? 그렇게 따지면 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우리 후손들은 애초부터 없었겠군. 단지 세상의 일부분만 보고 와서 여성으로 태어나 서럽다는 건 말이 안 되오.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했는지 모르니 말이오.”

호랑이의 벼락같은 악매에 곰은 입을 삐쭉거렸다.

“흥, 자네가 뭐라고 하던 난 내가 되고 싶은걸 하겠소. 어디까지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곰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는 호랑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들의 옥신각신언쟁은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였다.

“이보시오, 곰! 도대체 한나절 동안 인간세상에서 뭘 보고 온 게요. 나를 따라 다시 한 번 가 봅시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내려간 인간세상은 온갖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곰. 세상은 공평하다는 걸 모르오?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오. 저 길 보시오. 오늘 영장이 나와 애인과 헤어질 생각에 슬픔에 잠긴 저 청년이 보이시오? 그리고....."

호랑이가 가리킨 곳은 한 주택이었다,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한 중년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조금 지쳐 보이지 않는가?"

"....."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는 곰.

"왜 말이 없소? 자네도 궁금답답한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곰.

"아, 저길 보게나. 머릴 자르고 오라는 선생의 말에 자를까말까 하는 고민에 빠진 저 도담다담한 소년이 보이는가? 머리를 자르면 이마에 수박 씨 같은 큰 복점이 다보이겠군. 것 참 안됐어. 낄낄....."

호랑이가 곰을 쳐다보았다. 말을 할까 망설이던 곰은 결심했다는 듯 호랑이를 보았다.

"것 참 더 헷갈리는군. 이제와 보니 남자도 별 거 없어. 대략 500일을 군대라는 곳에서 썩어야한다니. 내 청춘을 그렇게 보낼 순 없지, 암 그렇고말고."

호랑이가 참다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이거 원, 말이 안 통하는군. 자네 알아서 정하시오. 이거 하나 말해두겠는데 지금 저기 있는 인간들은 성별이 어떻든 간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네. 허나 자네는 지금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재기만 하고 있다니..쯧쯧.. 참으로 한심한 꼴이군! 쑥을 먹던 말든, 마늘냄새를 풍기던 말든, 상관하지 않겠소. 처음부터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한 치도 없었건만, 어찌 내 뜻을 그렇게만 받아들이오?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극단에 치닫게 하니..이거 원! 먼저 가보겠소,"

호랑이의 쓰디 쓴 퇴장에 곰은 아리송해 한 듯하다가, 뒤를 돌아 인간 세상을 쭉 둘러보았다.

"인간되기를 포기한 주제에 나한테 웬 성질이람."

혼자 중얼거리는 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런 말을 내뱉은 걸 후회하였다. 새벽녘, 윤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곰. 시나브로 호랑이의 말에 왼쪽 가슴이 콕콕 아려오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무지개와 맛깔스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동굴 입구를 등지고 누운 호랑이가 갑작스런 그늘에 고개를 돌렸다. 환히 웃고 있는 미련탱이 곰이 있었다.

“여보쇼, 내가 어젠 참 어리석었어.”

“.....”

곰이 가만히 못들은 체 하고 있는 호랑이를 발로 스윽 밀자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호랑이.

"이봐 호랑이, 여자나 남자나 참으로 상대적인 존재였소. 여자의 단점이 있으면 남자도 만만치 않았소. 문득 자네가 자릴 비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소. 부족한 곳이 있다면야 그 부족한 곳을 넘치는 이가 채워주면 되고..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면 되겠더라구."

호랑이가 빙긋 웃었다.

“그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누가 더 좋고 누가 입이 더 삐죽거리고 그런 게 어디있는가?”

곰이 호랑이의 말을 이어갔다.

“어디까지나 어떻게 생각 하냐 에 달린 거지 뭐. 요새 남자교사 할당젠가 호주제 폐지라던가 말이 많다고들 하지,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가면 되겠더만 뭐. 아들이 대세라느니, 딸이 키우기 편하다느니, 다 옛말이지 아니 그런가? 그리구 눈을 크게 떠보니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아내는 물론, 조선시대 남성우월사상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소. 세상이 워낙 바뀐 만큼 힘들었었겠지만 사회에 당당히 진출하는 여성들도 점차 많아지는 판국이고, 남성을 향한 편견들이 지금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더라구. 다들 자신들의 권리를 잘 찾아가고 있더군. 그래 그러는 거야 안 그렇소?”

“그래, 그건 그렇고 뒤돌아 보기나하세. 그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은 보람이 있구먼. 허허”

뒤돌아본 곰. 오색찬란한 빛이 내려와 곰과 나란히 손을 잡았다. 어쨌든 잘 마무리된 듯.....호랑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잠에 들었다. 그 빛이 환인의 아들인지.....그냥 저 동네의 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